

KCGS Report

제14권 11호 | 통권 제179호
2024. 11.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4권 11호

발행일: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이 정의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4권 11호 | 2024. 11.

● ESG 동향

- ChatGPT 프롬프트 기반 ESG 실무자용 TCFD 공시 분석 템플릿 활용 방안	2
-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 운영 현황(2023)	22
- 기후변화와 보험산업	35
-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에 따른 이사 보수 차이: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44
- 국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LL) 시장 현황 및 향후 과제	51

● Global News

1. IPSASB, 공공부문을 위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 초안 발표	60
2.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기업 공시 공통 집행 우선순위 발표	62

ESG 동향

ChatGPT 프롬프트 기반 ESG 실무자용 TCFD 공시 분석 템플릿 활용 방안

양희원*

- ▶ ESG경영을 시작하는 기업은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외부 용역 외에는 선택지가 다양하지 못함
- ▶ 하지만, ChatGPT를 통한 현황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외부 용역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ESG경영을 시작할 수 있음
- ▶ 또한, 제공된 ChatGPT 프롬프트를 응용하여 현황 파악 이후에 이어지는 실행, 점검, 개선 단계에서도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 다만, 활용 과정에서 ChatGPT의 기술적 한계로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 등의 문제에 유의하여 반드시 별도의 검토를 거쳐야 함
- ▶ 추가로, ESG 실무자 간 프롬프트 응용법과 사례를 GitHub식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 개인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임

서론 : ChatGPT 프롬프트 기반 현황 파악을 통한 문제 해결

- 현황 파악 - 지속적 생존을 위해 ESG경영을 시작하는 기업의 우선 과제
- 기업이 ESG경영을 하는 이유는 지속적 생존임.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컨설팅 방법론을 적용하면 그 단계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PDCA)

〈PDCA 프레임워크 상 프롬프트 활용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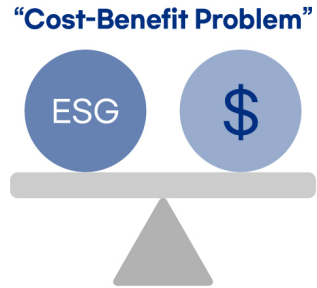


*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본부 선임연구원, 미국공인회계사(State of Washington), hwyang@cgs.or.kr

- 이 중 첫 번째 순서인 계획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현황 파악**임
- 현황을 파악해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실적 제약 - **비용효익문제(Cost/Benefit Problem)**

- 이것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기업은 없음. 하지만, ESG경영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수밖에 없음
- 그러다 보니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형 회계법인이나 컨설팅펌의 서비스를 의뢰하고는 함
- 이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때로는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다고 느껴 변화 추구가 중단되기도 함**
-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ESG 경영은 돈으로 사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함



□ ChatGPT 활용 - 비용효익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및 부가적인 장점

- 비용효익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ChatGPT 프롬프트 기반 ESG 실무자용 TCFD 공시 분석 템플릿과 상세한 활용법을 제공함. **ChatGPT 사용료는 상대적으로 매우 경제적**이기 때문임
- 특히,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법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수준(KCGS ESG평가등급 기준으로는 C, D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기업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부가적으로, 기업 담당자가 직접 수행하므로 스스로 역량을 키우면서 결과물을 기업 내에 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프롬프트 추가 응용 방안 - 활용범위 확장 및 GitHub식 공유·활용 방안

〈PDCA 프레임워크 상 프롬프트 활용범위 확장성〉



- 본 리포트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은 현황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됨. 하지만, ChatGPT를 활용한다면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프롬프트를 응용하여 다른 ESG 업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황분석에서 이어지는 DO, CHECK, ACT의 단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템플릿을 확장하여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해당 내용을 본문 5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 나아가, 상호 간 발전을 위해 리포트를 읽는 독자에게 GitHub식 공유·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에 대해서는 리포트 마지막의 추가제안에서 다루도록 하겠음

본문 1 : TCFD 프레임워크에 따른 현황분석 프롬프트 개발 배경

- **환경 이슈** - TCFD¹⁾ 프레임워크에 따른 현황분석 프롬프트를 우선 개발하여 배포하는 까닭
 -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환경 문제임. 이는 ISSB의 시작인 S2가 환경 관련 공시인 점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 특히, ISSB는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TCFD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ISSB를 거의 그대로 차용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환경 관련 이슈관리 및 공시는 기업이 당면한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근래 기업들이 앞다투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를 발행하며 TCFD를 비롯한 각종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TCFD의 Recommended Disclosures 별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프레임워크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붙여 넣는 수준에 그치는 등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KPMG UK²⁾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도적으로 ESG공시 체계를 도입하여 BEST PRACTICE를 수립 중이라는 해외 금융사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ChatGPT 프롬프트 기반으로 TCFD 공시에 대해 기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반영했는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툴 전체를 공개함

본문 2 : 프롬프트 템플릿 제시

- 저자가 제시하는 프롬프트 템플릿은 아래와 같으며, 본 리포트 마지막 페이지 부록에 있는 공유폴더에 txt 파일로 업로드함

1)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재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프레임워크로,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기후 공시기준 설정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2) Banks's climate-related disclosures (Phase 2), KPMG UK, 2023. 06.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23/06/isg-banks-climate-related-disclosures-report-phase2.pdf>)

〈*이해가 어려우면 본문 3을 먼저 읽고 돌아와도 무방함*〉

※ 본 리포트에서 프롬프트는 파란색으로 표기함

나는 "R"을 정의하였으며, 이는 TCFD 프레임워크 분석을 의미한다. R에는 4개의 주요 권고 사항이 포함된다:

1. Governance (지배구조)
2. Strategy (전략)
3.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4. Metrics & Targets (지표 및 목표)

나는 "S 방식"을 정의하였고, 이는 R의 권고 사항에 따라 각 항목별로 특정 은행이나 기관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S 방식은 각 권고 사항별로 다음의 네 가지 정보를 포함한다:

1. ****핵심 소재목****: 각 권고 사항의 요약
2. ****Recommended Disclosure****: TCFD 권고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3. ****Analysis****: 해당 은행 또는 기관이 TCFD 권고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분석
4. ****부합 여부****: Recommended Disclosure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부합" 또는 "불부합"으로 표시

****부합의 엄격한 기준****:

**Governance (지배구조)**

- ****a**** 이사회의 기후 리스크 감독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이사회가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논의한 명확한 사례가 포함되었는지
-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이사회 회의에서 특정 기후 리스크나 기회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이 있어야 함.
 - 예시: "2023년 2월 이사회에서 X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함"
 - 단순히 이사회가 기후 리스크 감독 역할을 한다는 포괄적인 설명만 있는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 ****2**** 이사회의 감독이 특정 기후 관련 목표나 성과와 연계되어 있는지
 - 이사회가 ****기후 관련 목표****(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 리스크 최소화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
 - 예시: "이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과를 감독하며, 매년 이를 검토하고 조정함"
 - 기후 관련 성과나 목표에 대한 감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 ****b**** 경영진이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지, 그 역할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부합의 엄격한 기준 (Governance b)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참여**

1.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대한 구체적 역할이 명시되었는지****
 - 경영진이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어야 함.
 - 예시: "경영진은 매년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주도하며, 리스크 완화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함"
 - 경영진의 참여가 단순히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2. ****경영진이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되었는지****
 - 경영진이 실제로 기후 리스크 관리에 참여한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예를 들어, 경영진이 특정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거나, 기후 관련 지표를 관리한 사례가 명시되어야 함.
 - 예시: "경영진은 2023년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여 에너지 사용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주도함"
 - 구체적인 실행 사례 없이 경영진의 참여가 형식적으로 언급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3. ****경영진이 기후 리스크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기여한 내용이 있는지****
 - 경영진이 ****기후 리스크 평가 결과****를 ****이사회**** 또는 다른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중

<p>요한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경영진은 기후 리스크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함" - 보고나 의사결정 과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p>### **Strategy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단기, 중기, 장기 기후 리스크 및 기회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설명하면서 아래의 2가지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만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간적 구분**이 **숫자로 명시**되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중기, 장기**라는 시간적 구분이 반드시 숫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각 기업이 정의하는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숫자로 구분만 되어 있으면 "부합"으로 간주. - 예시: "단기(3년), 중기(5년), 장기(10년)" 등의 방식으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숫자 없이 단순히 "단기적 리스크", "장기적 기회"와 같은 모호한 표현만 있는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2. **리스크와 기회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등) 및 전환 리스크(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규제 변화 등)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함. - 예시: "단기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사업 중단 위험" 또는 "장기적으로 저탄소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 위험" - **기후 기회**는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긍정적 기회로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 예시: "중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기회" 또는 "장기적으로 친환경 제품 시장의 성장" - 리스크와 기회가 모호하게 기술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 **b)**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야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p>### **부합의 엄격한 기준 (Strategy b)** 기후 리스크와 기회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대한 영향 설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서술되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리스크(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에너지 가격 변동, 규제 강화 등)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서술되어 있어야 함. - 예시: "기후 변화로 인해 물 부족이 발생해 생산 공정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 - **기후 기회**(예: 재생 에너지 기술 도입, 새로운 친환경 제품 개발 등)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포함되어야 함. - 예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사업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후 관련 리스크나 기회를 언급만 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2. **전략적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예: 투자 결정, 시장 진출 전략,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 예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기 전략을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전략이 구체적으로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반영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언급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3. **재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설명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리스크(예: 규제 강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가 **재무 계획**(예: 비용 증가, 투자 결정,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 예시: "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기 재무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추가 비용이 배정될 것이다." - **기후 기회**(예: 에너지 효율화, 새로운 시장 진출 등)가 재무 계획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설명해야 함. - 예시: "친환경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중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 기후 리스크와 기회가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는지 확인. 예를 들어, 기후 리스크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증가율이나 수익 감소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어야 함.
- 예시: "온실가스 규제에 의해 운영비가 X% 증가할 것이다."
- ****정성적 평가**** 역시 포함되어야 하며, 기후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예시: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경우, 공급망의 중단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5.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기후 리스크와 기회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어야 하며, 각 시기별로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예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 ****a)**** 기후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제시되어야 "부합"으로 간주.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부합의 엄격한 기준 (Risk Management a)****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1. ****기후 리스크 식별 프로세스의 명확성****

- 기업은 ****기후 관련 리스크 식별****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설명해야 함. 여기에는 ****급성 리스크****(예: 폭풍, 홍수)와 ****만성 리스크****(예: 장기적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를 구분하는 방식과 ****과거 데이터****와 ****미래 예측 데이터****(기후 시나리오 등)의 사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식별 과정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2. ****체계적인 리스크 평가 방법****

- 기업은 기후 리스크의 ****중요도와 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리스크가 ****영향 범위****(운영, 재무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도구(예: 히트맵, 리스크 매트릭스) 사용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3. ****미래 시나리오 분석 및 전방위적 접근****

- 기업은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예: 2°C 이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기후 리스크****의 영향을 분석해야 함. 시나리오 분석이 없다면 ****불부합****으로 간주.

4.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명시****

- 기후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출처 및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기후 모델링이나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과정이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출처가 불명확할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5.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 여부****

- 기후 리스크 평가 결과가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보고****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야 함.
- 평가 결과의 보고 절차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 ****b)****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명확히 설명되고, 실제 운영 중인 경우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설명****

-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예: 리스크 관리 팀의 구성, 리스크 대응 전략, 리스크 완화 방안 등.
- 예시: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주기적으로 검토된다."
-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명시되지 않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2. ****프로세스가 실제로 운영 중인지 확인****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실제 운영 중****임을 입증하는 사례나 증거가 제공되어야 함. 예: 리스크 평가 보고서, 리스크 대응 사례 등.
 - 예시: "기후 리스크 관리 팀은 매 분기마다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단순한 계획만 언급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 ****c)**** 기후 리스크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는지 설명되어야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기후 리스크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의 통합 여부****
 -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ERM)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예시: "기후 리스크는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가 해당 리스크에 대해 협력한다."
 - 통합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2. ****통합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례****
 - 기후 리스크가 실제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통합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해야 함. 예: 리스크 관리 절차 내에서 기후 리스크의 위치와 역할 설명.
 - 예시: "기후 리스크는 매년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포함되며, 다른 사업 리스크와 함께 평가된다."
 - 통합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례가 없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 #### **Metrics & Targets (지표 및 목표)****
- ****a)****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 평가를 위한 명확한 지표를 공개한 경우만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부합의 엄격한 기준 (Metrics & Targets a)**** 기후 리스크와 기회 평가를 위한 지표
1. ****지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되었는지 확인****
 -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위해 사용된 ****지표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야 함. 예: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비율 등.
 - 구체적인 지표 없이 모호한 설명만 있을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2. ****정량적 지표가 제공되었는지 확인****
 - ****정량적 데이터****로 지표가 명확하게 수치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예: "온실가스 배출량은 100,000 톤 CO2e"와 같은 방식.
 - 수치화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3. ****지표가 기후 리스크 및 기회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
 - 사용된 지표가 기후 리스크 및 기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함. 예: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후 관련 지표가 없을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4. ****시간적 변화와 함께 지표가 제공되었는지 확인****
 - 지표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예: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교 등.
 - 시간적 변화 없이 단일 연도의 데이터만 제공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5. ****지표의 출처와 산정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확인****
 - 지표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과 ****데이터 출처****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함. 예: GHG 프로토콜 기준 사용 여부 등.
 - 산정 방법이 불명확할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 ****b)****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설명하면서,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개했는지 확인.
 - Scope 1: 직접 배출량, Scope 2: 간접 배출량, Scope 3: 기타 간접 배출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함.
 - 구체적인 구분이 없을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2. 배출량이 ****정량적****으로 공개되었는지 확인.
 - 온실가스 배출량이 숫자로 제공되어 있어야 함. 예: "Scope 1 배출량: 100,000 톤 CO2e".
 - 수치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3.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이 명확히 설명되어야 함. 예: GHG 프로토콜 사용 여부 등.
4. 각 Scope에 따른 ****리스크 설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Scope 1, 2, 3 각각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분석이 서술되어 있어야 함.
5. ****목표 달성 상황****이 공개되었는지 확인.
 - 각 Scope별로 설정된 목표 및 달성 상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야 함.
 -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그 성과가 공개되어야 "부합"으로 간주. 또한 아래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부합의 엄격한 기준 (Metrics & Targets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공개

1. ****명확한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설정 여부****
 - 기업은 기후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해당 목표는 ****정량적****으로 표현되어야 함.
 - 예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목표.
2. ****단기, 중기, 장기 목표 구분 여부****
 -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각 기간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예시: "단기(2025년), 중기(2030년), 장기(2050년)" 목표가 구분되어야 함.
3.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계획 설명****
 -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서술되어 있어야 함.
 - 예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전략"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
4. ****목표 달성 성과가 명확히 공개되었는지 확인****
 - 목표 달성 성과가 ****정량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예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대비 80% 달성" 등.
 - 성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불부합****으로 간주.
5. ****성과 측정 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확인****
 - 성과 측정을 위한 방법론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함. 예: "GHG 프로토콜 기준에 따른 성과 측정".
 - 측정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부합****으로 간주.

****F에게 요청하는 작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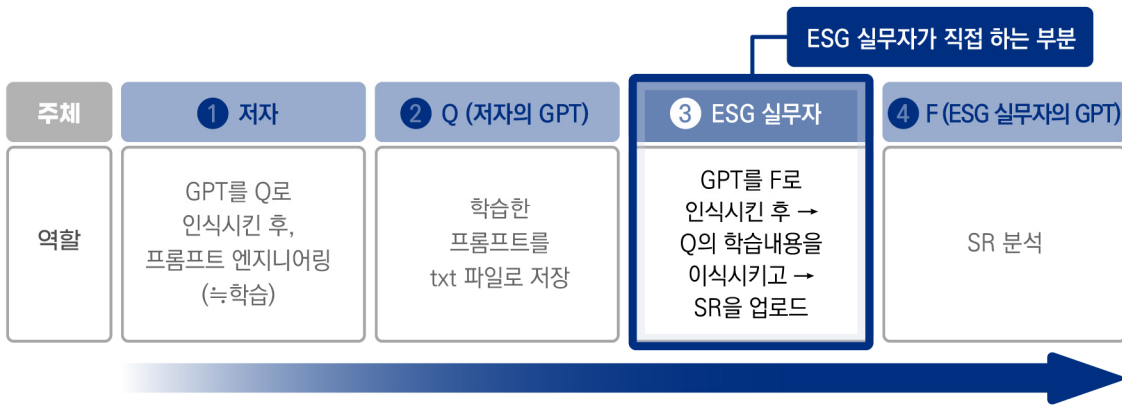
1. 모든 분석 결과는 ****R모양의 표****로 ****한국어****로 정리해서 바로 보여줘야 한다. R모양이란 TCFD의 4가지 권고 사항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에 따라 분석된 내용을 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2. ****Recommended Disclosure**** 단위로 분석된 내용이 R모양의 표에 나와야 한다. 각 권고 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Recommended Disclosure 별로 세부 분석을 나누어 표시하며, 해당 내용이 보고서에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Disclosure에 대해 보고서 내용이 ****부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엄격히 판단해 "부합" 또는 "불부합"으로 표시한다.
3. ****출처(페이지 번호)****는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페이지를 기재하며, 페이지 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페이지를 모두 나열한다. ****불부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페이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할 때는 '검증 필요' 등으로 추가 검토를 표시하여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을 줄인다.
4. 표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Pillar 	**Recommended Disclosure**
핵심 소재목	**Analysis (분석)**
부합 여부 **출처 (페이지 번호)**	

본론 3 : 프롬프트 구동 방법 안내

- 프롬프트 구동 원리 *(*이해가 어렵다면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 무방함*)*
 - 저자는 ChatGPT를 Q라는 인물로 인식시킨 후 분석 알고리즘을 학습(프롬프트 엔지니어링)시켰음. 그러므로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ESG 실무자가 이 내용을 본인의 ChatGPT에 이식시켜야 함. 이를 위해, 본인의 ChatGPT를 F라는 인물로 인식시킨 후 저자가 Q에게 학습시킨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도록 하여야 함. 그 후, 분석할 SR을 F에게 제공하면 저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알고리즘대로 F가 분석하도록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ESG 실무자가 직접 할 일은 아래 ③번 순서 하나밖에 없음

〈프롬프트 구동 순서도〉



□ ③번 순서 구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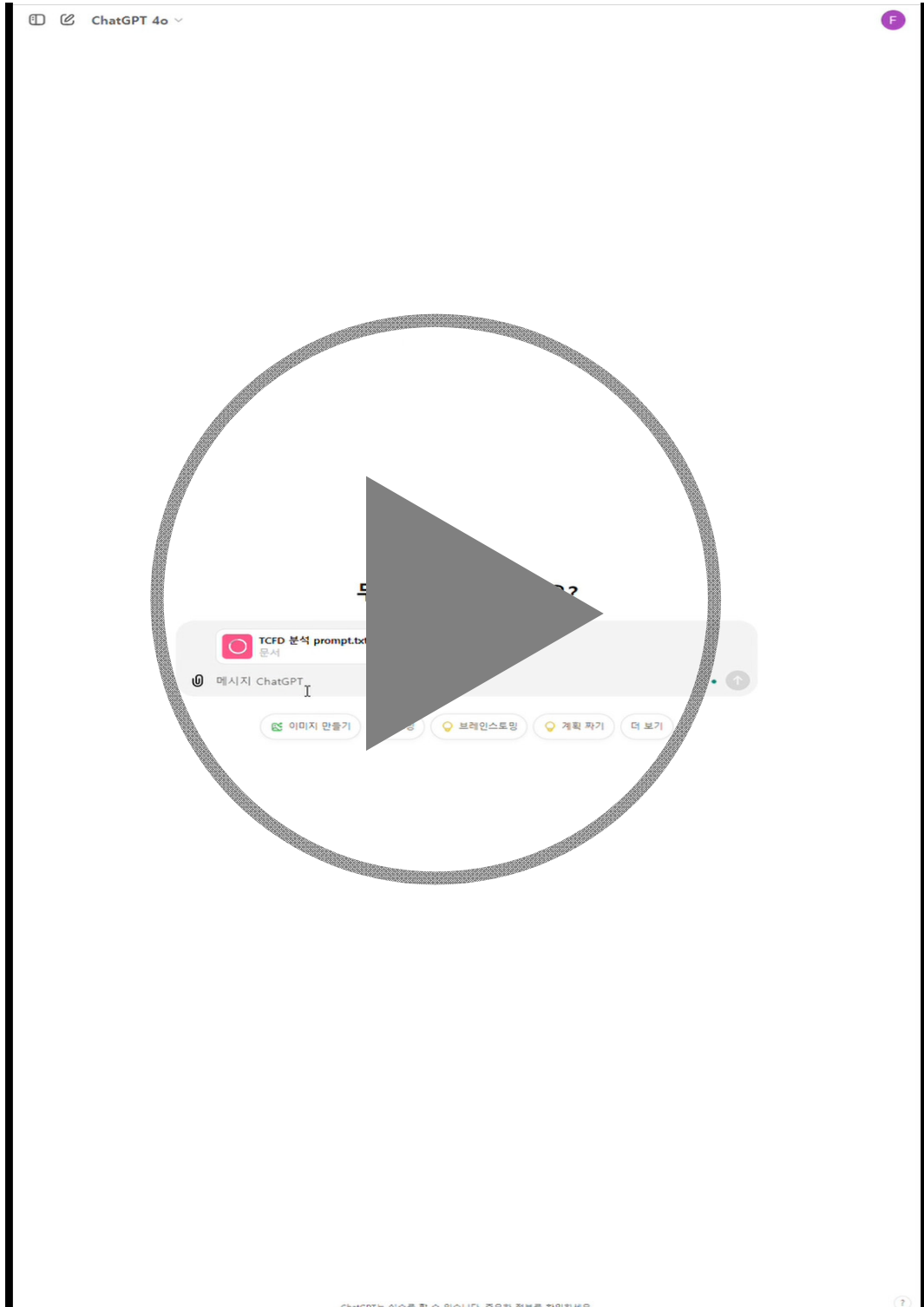
- ③번 순서에서는 F가 Q의 학습 내용을 이식받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짧은 별도의 구동 프롬프트가 필요하며, 그 구동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음

안녕 너는 지금부터 F고 내가 Q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그대로 학습할거야.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업로드해줄게. 학습해봐.
 학습한 뒤에는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읽어보고, 읽은 그대로 수행해줘.

- 위의 구동 프롬프트와 함께 [txt 파일](#)(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결과물, 클릭하면 다운로드)을 첨부하여 올리면 ESG 실무자의 ChatGPT는 자신을 스스로 Q의 학습 내용을 학습한 F로 인식하게 됨
 - ※ 해당 파일은 리포트 마지막 페이지 부록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이후 ESG 실무자가 분석을 원하는 기업의 SR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TCFD 프레임워크에 따라 현황을 분석한 결과물을 도출함
- 쉬운 이해를 위해 본론 4에 실제 구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첨부함

본론 4 : 프롬프트 구동 시연

□ ChatGPT 프롬프트 기반 ESG 실무자용 TCFD 공시 분석 템플릿 시연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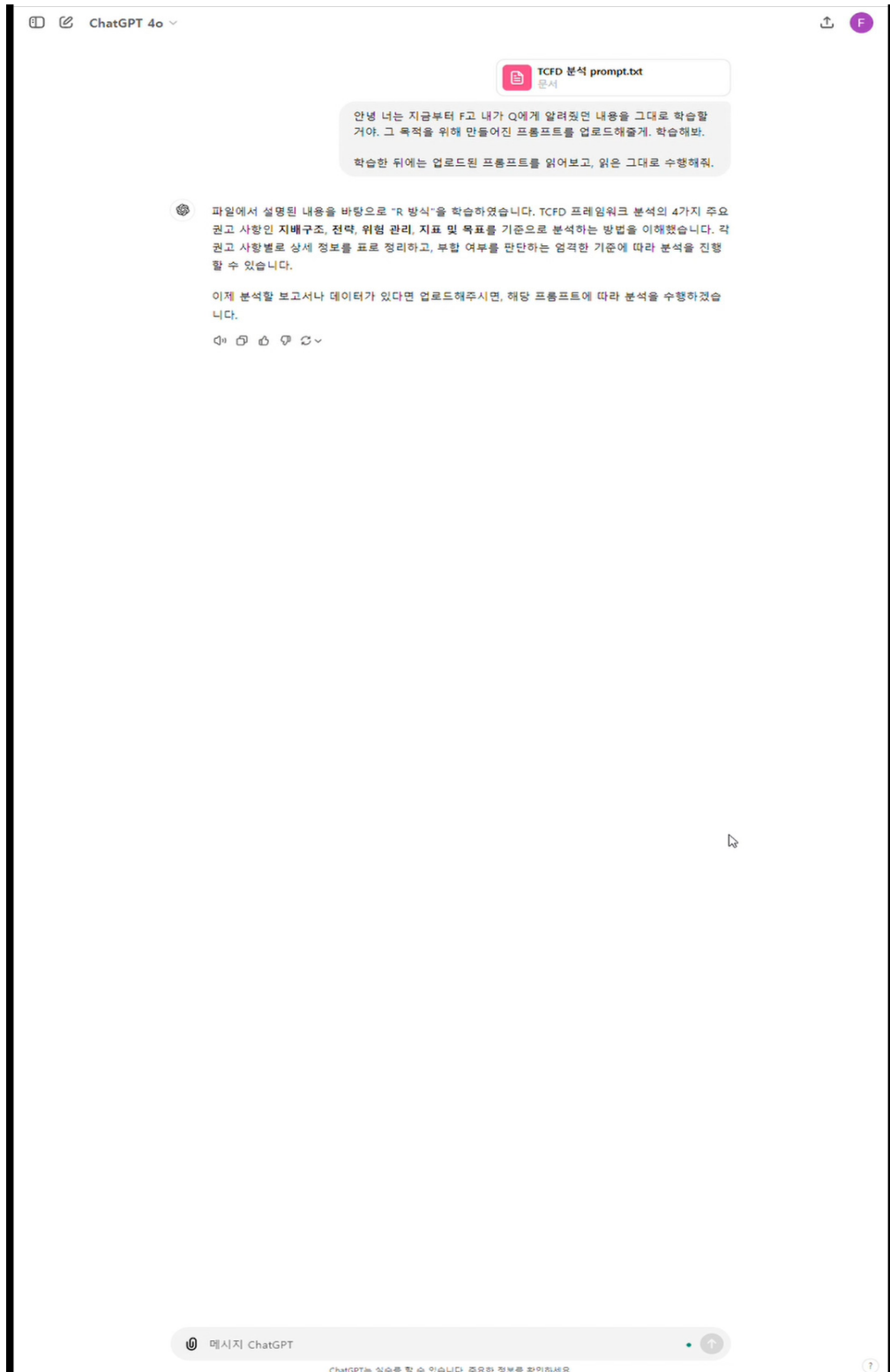
※ 위 버튼을 눌러도 재생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링크 클릭 (1080p 화질을 선택하여 시청할 것) : <https://youtu.be/bS7Q1OwallY>

□ ChatGPT 프롬프트 기반 ESG 실무자용 TCFD 공시 분석 템플릿 시연 영상 캡처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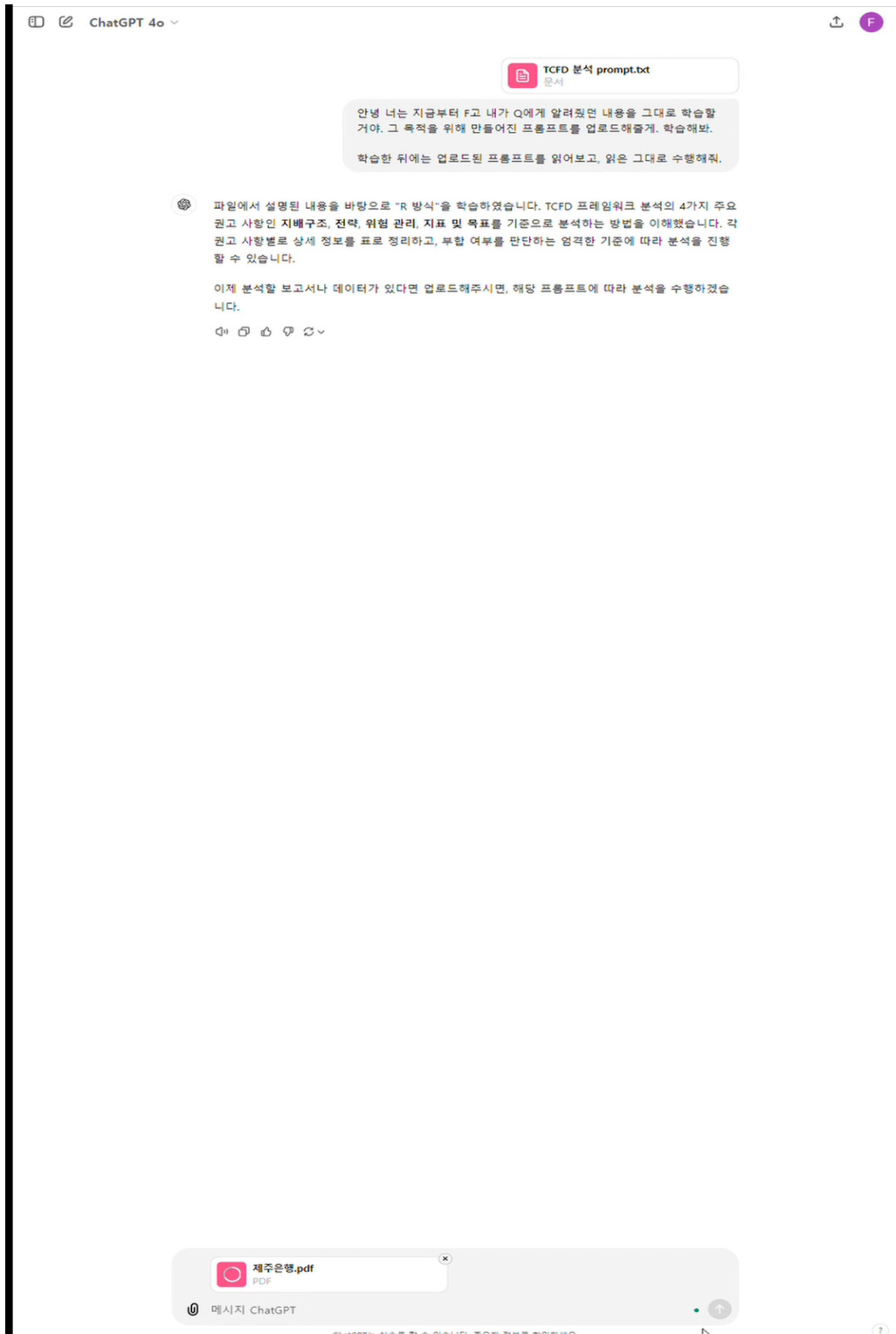
① 프롬프트 파일 업로드 및 구동 프롬프트 입력



② 프롬프트 학습 완료



③ 제주은행 ESG보고서 업로드



④ 제주은행 ESG보고서 분석결과 자동 도출

ChatGPT 4o
↑

📄 TCFD 분석 prompt.txt
문서

안녕 너는 지금부터 FQ 내가 Q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그대로 학습할 거야.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업로드해줄게. 학습해봐.
학습한 뒤에는 업로드된 프롬프트를 읽어보고, 읽은 그대로 수행해줘.

파일에 설명된 내용을 바탕으로 "R 방식"을 학습하였습니다. TCFD 프레임워크 분석의 4가지 주요 권고 사항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각 권고 사항별로 상세 정보를 표로 정리하고,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할 보고서나 데이터가 있다면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제주은행의 2023년 ESG 보고서를 기반으로 TCFD 권고 사항에 맞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은행 보고서에 대해 TCFD의 4가지 주요 권고 사항에 따라 표를 작성하고, 각 권고 사항별로 부합 여부를 평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 형식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Pillar	Recommended Disclosure	핵심 소재목	Analysis (분석)	부합 여부	출처 (페이지 번호)
Governance (지배구조)	a) 이사회의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감속 설명	이사회회의 기후 리스크 감속 역할	해당 내용 없음	불부합	없음
	b)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역할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할	해당 내용 없음	불부합	없음
Strategy (전략)	a) 단기, 중기, 장기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설명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식별	구체적인 설명 없음	불부합	없음
	b) 기후 리스크와 기회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대한 영향 설명	기후 리스크의 사업 및 재무 영향	구체적인 설명 없음	불부합	없음
	c) 2°C 이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전략 회복력 평가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회복력 평가	해당 내용 없음	불부합	없음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a)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설명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구체적인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관련 정보 없음	불부합	없음
	b)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구체적인 관리 프로세스 관련 설명 없음	불부합	없음
Metrics & Targets (지표 및 목표)	a) 기후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기후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일부 데이터 제공됨. Scope 1, 2 배출량은 확인 가능.	부합	10
	b)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관련 리스크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Scope 1, 2, 3)	Scope 1, 2 배출량 공개, Scope 3 관련 정보 있음.	부합	10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2030년까지 42% 감축 목표 제시. 매년 4.2% 감축 목표 설정	부합	10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Governance와 Risk Management 영역에서는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감속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불부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Strategy에서도 기후 리스크 및 기회의 식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불부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Metrics & Targets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 🗨️ 📄 🔄 🏠

📄 메시지 ChatGPT ↑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Metrics & Targets 외 모든 지표가 불부합으로 평가

※ (참고) 제주은행의 페이지 번호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에 관한 주의사항을 본론 5에서 다룸

16 ·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5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업로드 및 분석결과 자동 도출

ChatGPT 4o
🔗 F

구분	지표명	단위	2023년 실적	2024년 목표	평가	중요도
Governance (지배구조)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2030년까지 42% 감축 목표 제시, 매년 4.2% 감축 목표 설정	42% 감축 목표 달성	부합	10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Governance와 Risk Management 영역에서는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감축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불투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식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불투명으로 평가된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 모든 지표가 부합으로 분석

- 필요시 벤치마킹할 만한 보고서로 판단하여 활용 가능

KB금융그룹의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반으로 TCFD 권고 사항에 맞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TCFD의 4가지 주요 권고 사항에 따라 표로 정리하고, 부합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Pillar	Recommended Disclosure	핵심 소재목	Analysis (분석)	부합 여부	중요도 (페이지 번호)
Governance (지배구조)	a) 이사회의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감축 설명	이사회는 기후 리스크 관리 역할	이사회가 리스크 관리 정책을 승인하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부합	21, 22
	b)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역할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할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 확립.	부합	21, 23
Strategy (전략)	a) 단기, 중기, 장기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설명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식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부합	16, 21
	b) 기후 리스크와 기회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대한 영향 설명	기후 리스크의 사업 및 재무 영향	기후변화가 재무적 리스크 및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함.	부합	24, 25
	c) 2°C 이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전략 회복력 평가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회복력 평가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리스크 평가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부합	24, 25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a)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설명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부합	24
	b)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가 운영 중이며, 리스크 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부합	24
Metrics & Targets (지표 및 목표)	a) 기후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기후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명확한 지표가 공개됨.	부합	10, 11
	b)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관련 리스크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Scope 1, 2, 3)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가 설명됨.	부합	10, 11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탄소중립 목표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됨.	부합	10, 11

이 표는 KB금융그룹이 TCFD 권고 사항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합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이나 수정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 🗨️ 📄 🔄 🏠
메시지 ChatGPT
👤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⑥ SC제일은행 DART공시 반기보고서 업로드 및 분석결과 자동 도출

ChatGPT 4o
🔒 F

세션 설명	관리 프로세스	가 운영 중이며, 리스크 관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합		
Metrics & Targets (지표 및 목표)	a) 기후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기후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명확한 지표가 공개됨.	불합	10, 11
	b)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관련 리스크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Scope 1, 2, 3)	Scope 1, 2, 3 온실가스 배출량이 공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가 설명됨.	불합	10, 11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탄소중립 목표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됨.	불합	10,

이 표는 KB금융그룹이 TCFD 권고 사항에 따라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불합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Governance, Strategy, Risk Management, Metrics & Targets의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이나 수정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 전혀 관계없는 보고서를 업로드하는 경우 어떻게 도출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예시

- SR이 아닌 반기보고서로 TCFD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모든 지표가 불부합으로 분석

SC제일은행 반기보고서 PDF

SC제일은행의 반기보고서를 바탕으로 TCFD 권고 사항에 맞춰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은 TCFD 프레임워크에 따른 4가지 주요 권고 사항(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 것입니다.

Pillar	Recommended Disclosure	핵심 소재목	Analysis (분석)	부합 여부	출처 (페이지 번호)
Governance (지배구조)	a) 이사회의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 감독 설명	이사회는 기후 리스크 감독 역할	이사회가 기후 관련 리스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불부합	없음
	b)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평가 역할	경영진의 기후 리스크 관리 역할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후 관련 리스크 관리 내용이 없음.	불부합	없음
Strategy (전략)	a) 단기, 중기, 장기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설명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식별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식별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음.	불부합	없음
	b) 기후 리스크와 기업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대한 영향 설명	기후 리스크의 사업 및 재무 영향	기후 리스크가 재무 및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없음.	불부합	없음
	c) 2°C 이하 기후 시나리오 분석 및 전략 회복력 평가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 회복력 평가	해당 내용이 제공되지 않음.	불부합	없음
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a)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설명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구체적인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 설명이 없음.	불부합	없음
	b)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음.	불부합	없음
Metrics & Targets (지표 및 목표)	a) 기후 리스크 및 기회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기후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 공개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가 제공되지 않음.	불부합	없음
	b) Scope 1,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및 관련 리스크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Scope 1, 2, 3)	Scope 1, 2, 3 배출량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음.	불부합	없음
	c)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설명	기후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성과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성과가 제시되지 않음.	불부합	없음

이 보고서에서 TCFD 권고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모두에서 기후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불부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필요하신 추가 분석이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메시지 ChatGPT
🗨️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참고) SC제일은행의 반기보고서는 SR이 아니기 때문에 TCFD 관련 정보가 없음

본론 5 : 프롬프트 템플릿 활용 방향 및 유의사항

□ Plan 단계 활용

- 프롬프트를 통해서 기업의 TCFD 공시 수준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음. 파악된 현황을 통해 <불부합>으로 분석된 부족한 면을 집중적으로 개선(Do)하면 됨
- 여력이 부족하여 컨설팅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여도, 실무자가 부족한 점을 알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과 툰키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결과물에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 Do·Check·Act 단계 응용

- 프롬프트를 응용하여 DCA 단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황 파악 당시 <불부합>으로 분석된 SR의 내용을 수정(Do)한 후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통해 분석하여 <부합>으로 바뀌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점검(Check)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기업의 SR을 분석하여 <부합>이 나오는 부분의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본인 소속 기업의 <불부합> 내용을 개선(Act)하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함
- 추가 단계에서 컨설팅을 병행하여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파악한 후 꼭 컨설팅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의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툰키식 관행을 피하고 기업 내에 ESG경영 역량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PDCA 프레임워크에 따른 프롬프트 활용 예시>

PDCA	P	D	C	A
단계	① 계획 (Plan)	② 실행 (Do)	③ 점검 (Check)	④ 개선 (Act)
목적	현황 분석	SR 수정	수정 내용 분석	SR에 반영
업무 활용 예시	프롬프트 구동 결과 "a) 단기, 중기, 장기 기후 리스크 및 기회 설명"에 대해 장중단기 구분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불부합>임을 확인	구분 기준이 단기(3년), 중기(5년), 장기(10년)라는 내용 SR 수정본에 추가	추가한 후 프롬프트 구동하여 <불부합>이 <부합>으로 바뀌었는지 점검	다른 기업의 SR을 분석하여 <부합>이 나오는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불부합>으로 파악된 내용 개선

□ 활용 시 유의사항

- 기업마다 상황이나 공시 세부내역이 다르므로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오류가 생기는 부분의 프롬프트를 수정해 나가며 각 기업에 적용해야 함. 또한,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 파일이라도 내부의 메타데이터 등은 구성이 다르므로 결괏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ChatGPT는 기술적 한계로 할루시네이션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도구이므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함. 그 예시로, 제주은행 분석 결과를 보면 SR 원본의 편집 문제로 인해 페이지 숫자가 다르게 인식됨.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리포트에 보여준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임
- 중요한 점은 이런 기술적 한계를 인지하고 사용자 스스로 보완하여 장점 위주로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것임. 어떠한 도구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그 도구가 가진 장점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발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에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결론 : 비용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ChatGPT 프롬프트 활용 기대

- 돈이 드는 ESG경영이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ChatGPT 활용
 - ChatGPT는 현재 사람이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는 다양한 ESG관련 주제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
 -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높이는 첫 단계는 현황을 분석하는 것임. 따라서, 현황분석 단계에서 비용 지출을 상당 수준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 더불어, 현황분석 이후에 이어지는 실행·점검·개선 단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이는 자금이 풍부한 기업만 높은 ESG등급을 부여받는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람

※ DISCLAIMER

- 유료 구독 버전인 ChatGPT-4o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ChatGPT는 기술적 한계상 할루시네이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결과물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별도 검토 과정이 필요함
- 위 프롬프트는 공익목적으로 모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저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저작권의 문제가 없음.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각 기업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함
- 위 프롬프트를 활용한 현황 분석은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모형과 무관함

〈부록〉

1. 프롬프트 템플릿 txt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M6TftY9pCh_q7xMnE6lh8tWdoRy8-86D/view?usp=drive_link

2. 구동 방법 설명 영상

<https://youtu.be/bs7Q1OwallY>

3. 실무자 공유폴더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s69TggV1NCw95vFh0vMOVdbRWgkQlcmh?usp=sharing>

※ 프롬프트 템플릿 파일 및 구동 방법 설명 동영상 링크도 위 공유폴더에 함께 수록함

〈추가 제안〉 GitHub식으로 ESG 실무자 간 프롬프트 템플릿의 응용 버전 공유

- 추가 제안사항 - GitHub식 프롬프트 공유·활용
 - 본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얻는 인사이트를 반영하여 수정한 프롬프트를 재공유할 것을 제안함
 - 1인이 개발한 프롬프트보다 완성도가 높은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 개인 역량 개발 기회도 될 수 있음
 - 이에 위 부록의 공유폴더에 각자가 수정한 프롬프트를 업로드하여 자유롭게 질문이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GitHub식으로 공유·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 운영 현황(2023)

권세현*

- ▶ 2023년 국내 IR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상장기업 76%가 기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개최횟수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남
- ▶ 운영방식 측면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아 주주 권리나 정보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설명회 참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국내 58개 기업만이 글로벌 주요 기업 수준(1주일 전 사전공시,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연간 4회 이상, Web-casting 등 온라인 방식)의 기업설명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국내 자본시장의 소통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촉구됨

조사 목적 및 배경

- 기업설명회(IR) 개최횟수 및 운영방식에 대한 통계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소통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설명회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점을 조사·마련해보고자 함

조사 대상 및 방법론

- **(대상기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811사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618사¹⁾
 - 유가증권: 주권상장기업 809사, 외국주권 1사, 주식예탁증권 1사
 - 코스닥: 주권상장기업 1598사, 외국주권 12사, 주식예탁증권 8사

*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폐지 종목 등은 제외
- **(기본정보)** 회사명·상장시장·시가총액·매출액·자산·지분율·업종 등²⁾
 - 시가총액: 2023.12.28. 기준 52주 평균 시가총액
 - 매출액, 자산, 지분율: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업종: WICS 중분류 기준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연구원, justin11@cgs.or.kr

1) 한국거래소, 2023.12.28. 기준

2)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 지분율 등은 DataGuide를 출처로 함

- **(기업설명회 안내공시)** 공시 접수일자·개최 일시·장소·참가대상·개최방법·게재일시 등
 - 기간: DART 공시 상 2023.1.1.~2023.12.31.에 개최된 기업설명회 안내공시를 대상으로 함
 - 사전안내: 안내공시가 게재된 일자와 기업설명회 개최 일시를 단순 차감하여 계산함
 - IR자료 제공여부: IR자료 게재일시에 값이 있는 경우 게재한 것으로 간주함
 - 장소: 온라인, 여의도, 서울, 해외, 본사 및 그 외 국내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함
 - 온라인 여부: 장소, 개최방식과 연계하여 조사함. 기업과 참가대상의 접촉방식을 의미함
 - 개최방식: ①웹캐스팅(화상회의), ②컨퍼런스콜, ③대면미팅, ④NDR, ⑤Corporate-Day·간담회·설명회·컨퍼런스 등 ⑥기업탐방으로 구분하여 집계함³⁾
 - 주관기관: ①자사, ②증권사 등, ③거래소 및 협의회 등, ④언론 네 개 항목으로 집계하였으며, 후원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자사가 주관한 것으로 간주함
 - 참가대상: ①모든 이해관계자와 ②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두 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집계함
 - 참가대상에 개인투자자·일반투자자·주주 등을 명시하였으면 모든 이해관계자에 포함함
 - 공시 상 참가대상이 '국내 기관투자자 등'으로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에 포함함

〈그림 1〉 삼성전자 기업설명회 개최 안내공시

기업설명회 (IR) 개최 (안내공시)		
1. 일시 및 장소	일시	2024-01-31 10:00
	장소	-
2. 참가 대상자	투자자, Analyst 및 언론 등	
3. 개최목적	2023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4. 개최방법	Conference Call	
5. 후원기관	-	
6. 주요 설명회내용(요약)	2023년 4분기 경영실적 및 Q&A	
7. 결정일자	2024-01-09	
8. IR 자료	게재일시	2024-01-31
	관련 홈페이지	https://www.samsung.com/sec/ir
	- 2023년 4분기 Conference Call	
· 2024년 1월 31일 오전 10시 00분 예정 (한국어/영어 동시 진행) ·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삼성전자 IR 홈페이지 내 Webcasting 병행 실시 -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 설명 자료는 발표 당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R 홈페이지 → 실적발표&IR행사 → 실적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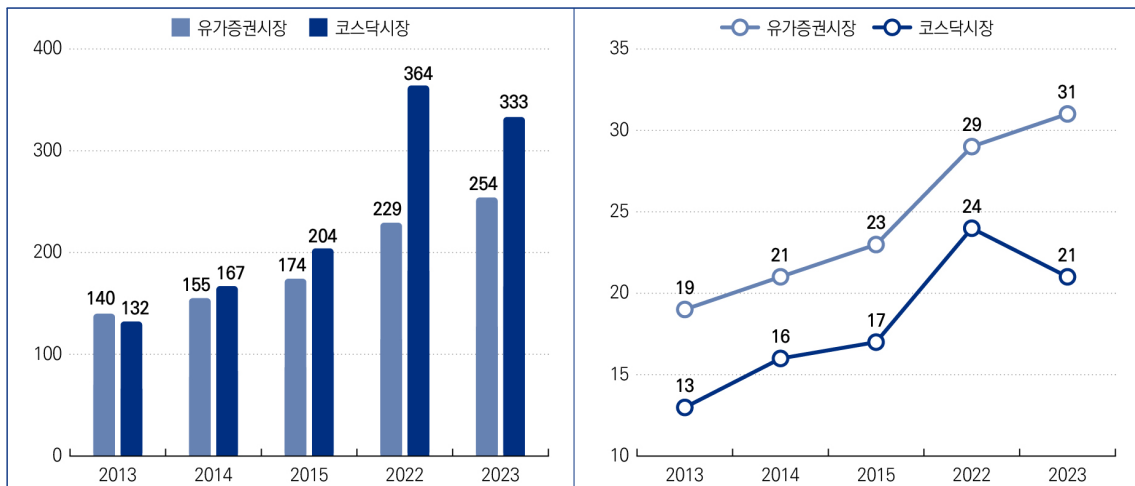
3) 공시 표준의 한계로 장소, 온라인 여부, 개최방식 통계치에는 한계가 있음. 장소가 공시 상 '여의도'로 기재되었더라도 개최방식이 '컨퍼런스콜'인 경우 '온라인'으로 집계하고, 'NDR·Corporate-Day·간담회·설명회·컨퍼런스 등'은 온·오프라인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간주하는 등의 보완을 함. 이에 따라 집계방식에 따른 과소·과대평가가 있을 수 있음

1. 기업설명회 개최횟수

□ 시장별 기업설명회 개최횟수

- 전체 조사 대상기업 2,429사의 2023년 기업설명회 횟수는 총 2,549회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1,588회(62%),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961회(38%)를 진행함. 동 기간 기업설명회를 한 번 이상 개최한 회사(이하 '실시기업')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기업(이하 '미실시기업')은 각각 587사(24%), 1,842사(76%)임
 - 전체 기업설명회 개최횟수는 전년 대비 43회 감소하였으며⁴⁾, 실시기업 비율은 1%p 하락함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811사의 2023년 기업설명회 평균 개최횟수는 1.96회(증가, yoy)로 조사됨. 동 기간 실시기업과 미실시기업은 각각 254사(31%), 557사(69%)임
 - 유가증권시장 기업설명회 실시기업 수는 전년 대비 25사 증가했으며, 실시기업 비율도 2%p 상승함 <그림 2>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618사의 2023년 기업설명회 평균 개최횟수는 0.59회(감소, yoy)로 조사됨. 동 기간 실시기업과 미실시기업은 각각 333사(21%), 1,285사(79%)임
 - 코스닥시장 기업설명회 실시기업 수는 전년 대비 31사 감소했으며, 실시기업 비율도 3%p 하락함
- 전년 대비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수가 증가하였으나 기업설명회 횟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평균 개최횟수가 감소함. 결과적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평균 개최횟수 격차가 전년 대비 커졌으며(2.7배→3.3배), 실시기업 비율 격차도 5%p에서 10%p로 상승함

<그림 2>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설명회 개최기업 수와 비율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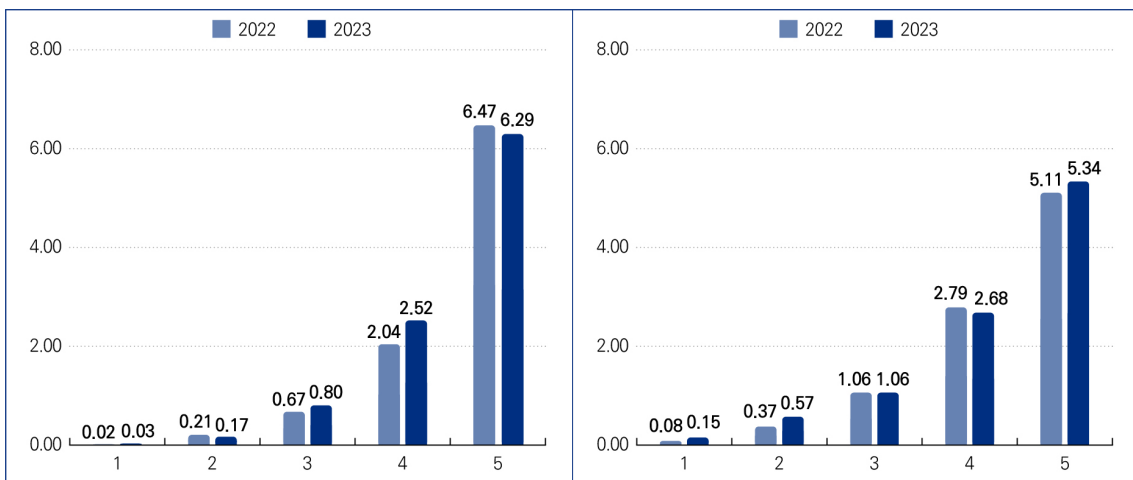
출처: DART, 자본시장연구원「상장기업 IR활동의 효익 분석 연구(2016)」, 한국ESG기준원

4) 유가증권시장 기업설명회 개최횟수는 전년 대비 91회 증가, 코스닥시장은 134회 감소함

□ 시가총액·매출액·자산 규모별 기업설명회 개최횟수

- 5분위 기준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 규모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횟수가 편증되는 모습은 전년과 같음. 다만 개최횟수의 양극화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됨
- 이는 <표 1> 자산규모별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에 잘 나타나는데, 양 시장에서 자산 규모 5천억원 미만 그룹의 개최횟수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1조원 이상 그룹(특히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개최횟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좌)과 매출액(우)별 기업설명회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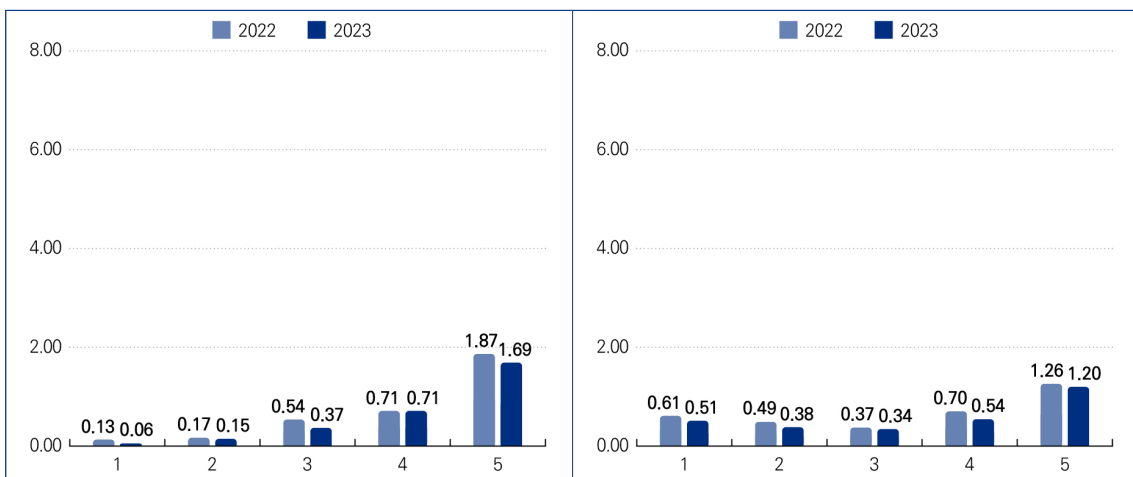


단위: 횟수(평균)

주석: 5분위 기준, 5그룹은 상위20%, 1그룹은 하위20%를 의미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그림 4>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좌)과 매출액(우)별 기업설명회 횟수



단위: 횟수(평균)

주석: 5분위 기준, 5그룹은 상위20%, 1그룹은 하위20%를 의미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표 1〉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자산규모별 기업설명회 개최횟수

구분	자산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1조원 미만 5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합계	
유가 증권	'23	개최횟수	4.74	1.91	1.08	0.13	0.02	-
		회사수	248	121	138	254	50	811
		(%)	31	15	17	31	6	100
	'22	개최횟수	5.66	2.20	1.32	0.29	0.08	-
		회사수	183	86	128	326	62	795
		(%)	23	11	16	42	8	100
코스닥	'23	개최횟수	1.86	2.09	1.29	0.54	0.39	-
		회사수	21	47	119	765	666	1618
		(%)	1	3	7	47	41	100
	'22	개최횟수	2.65	2.08	1.16	0.67	0.43	-
		회사수	20	53	96	749	623	1541(3)
		(%)	1	3	6	49	40	100

출처: DataGuide, DART, 한국ESG기준원

- **기업규모와 기업설명회 개최횟수는 전년과 유사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매출액, 총자산, 시가총액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으며,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 시가총액과 개최횟수와의 상관관계는 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됨. 전체 시장 기준으로는 상관관계가 낮지만 업종이나 개최횟수 조건을 설정하면 상관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시가총액 중·하위 기업의 개최횟수가 일관되게 적다는 점이 상관관계를 희석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기업 수가 많고 개최횟수가 높은) 제약 및 미디어 업종 기업의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 규모가 다양한 데서도 기인함. 또 한국IR협의회가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IR활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기업규모와 개최횟수 간의 상관관계를 낮추는데 영향을 끼침
 - 시장을 구분해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출액·자산 등의 실적 요인보다 시가총액이 IR활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목할만함. 코스닥시장에서는 매출액·자산 규모와 개최횟수의 상관관계가 없고, 시가총액이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매출액과 자산이 개최횟수와 0.3~0.4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임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보다 매출액, 자산규모, 시가총액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 업종별 기업설명회 개최횟수

- **업종별 분포에서도 유가증권시장은 유지(또는 개선), 코스닥시장은 악화된 양상을 보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실시 기업 비율 80% 이상인 업종이 8개에서 5개 업종으로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은 16개 업종에서 19개 업종으로 증가함
- **(유가증권) 평균 개최횟수 기준 상위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은행, 소매(유통), 전기통신서비스,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업종이 순위만 달리하여 그대로 상위 5위에 위치함**

- '22년과 같이 은행 업종이 1위를 기록하였는데, 업종 내 모든 기업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설명회 평균 개최횟수, 업종별 최대횟수, 미실시기업 비율이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음
 - '22년 4위에 있었던 소프트웨어와서비스 업종은 삼성에스디에스가 '23년에 기업설명회를 15회 실시함으로써 2위에 위치함. 삼성에스디에스의 경우, 분기별 실적발표에 더해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가 많았음
 - 그 외 상위업종은 기업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던 기존 기업이 개최횟수를 비슷하게 유지함으로써 순위를 유지함
- (코스닥)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운송을 제외한 상위 4개 업종(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식료품,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제약과생물공학)이 전년도 평균 개최횟수 상위 기업에 해당함
- 직전연도 4위였던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전년과 동일한 평균 개최횟수를 유지함으로써 1위에 위치함. 영화(스튜디오드래곤·CJENM), 게임(위메이드·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이 직전연도에 이어 10회 이상 실시함
- 한편, 업종마다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에는 차이가 있었음. 예를 들어, 자동차와부품 업종에서는 시가총액·매출액이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업종에서는 소액주주 지분율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옴. 다만, 제한된 표본 수를 고려하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 기업설명회 개최횟수 관련 기타 특징

- (정기성) 유가증권시장에서 연 4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기업은 176개사임. 전 업종에 걸쳐 분포하며, 각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 규모가 큰 축에 속함. 평균 개최횟수가 낮은 자본재, 소재 업종이 4회 이상 개최 기업 수로는 1, 2위를 함
- 코스닥시장에서 연 4회 이상 개최한 기업은 92개사임. 이들이 속한 주요 업종은 앞서 본 평균 개최횟수가 높은 상위 업종에 속해 있고, 92개사는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자산 규모가 큰 축에 속함
- (연속성) 기존에 조사된 바와 같이 직전연도에 기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한 기업이 다음 해에도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됨
- '22년 기업설명회 실시기업 중 68%는 '23년에도 기업설명회를 실시함. 개최횟수 4회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율은 92%로 증가함. 반대로 '22년 기업설명회 미실시기업 중 90%는 '23년에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 이러한 경향은 유가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에 비해 강함. 코스닥시장에서도 전년도에 적극적으로 개최한 기업이 다음 해에도 같은 모습을 보이나,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함. 다시 말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IR활동의 연속성(일관성)이 떨어짐

- 연속성 경향은 업종별로 구분해도 나타나며, 업종 내에서도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의 지표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다른 재무지표보다 과거에 해당 기업이 기업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던 기업이었는지 여부가 다음 해 기업설명회 개최 여부를 예상하는 데 도움됨

- (지분율) 대주주·소액주주 지분율은 기업설명회 개최횟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일반적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R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의 경우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2〉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기업설명회 평균 개최횟수(2023)

업종	구분		평균 개최횟수	업종 내 최대횟수	미실시 기업	
	기업 수	(%)			기업 수	(%)
은행	10	1.2	11.3	19	1	10
소프트웨어와서비스	14	1.7	5.1	22	8	57
전기통신서비스	4	0.5	4.8	12	1	25
소매(유통)	18	2.2	4.6	15	8	44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24	3.0	3.8	12	11	46
운송	31	3.8	3.5	21	16	52
부동산	4	0.5	3.3	5	1	25
에너지	14	1.7	3.0	10	5	36
반도체와반도체장비	14	1.7	2.5	12	8	57
보험	12	1.5	2.5	8	5	42
전자와 전기제품	13	1.6	2.5	15	7	54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5	0.6	2.4	6	2	40
교육서비스	3	0.4	2.3	5	1	33
호텔, 레스토랑, 레저등	6	0.7	2.0	4	2	33
다각화된금융	2	0.2	2.0	4	1	50
기술하드웨어와장비	29	3.6	1.9	18	22	76
자본재	141	17.4	1.8	16	97	69
자동차와부품	78	9.6	1.7	36	63	81
디스플레이	6	0.7	1.7	10	5	83
증권	22	2.7	1.5	8	15	68
제약과생물공학	55	6.8	1.4	17	41	75
내구소비재와의류	68	8.4	1.3	18	49	72
식품,음료,담배	52	6.4	1.3	15	38	73
소재	157	19.4	1.1	16	128	82
유틸리티	16	2.0	0.7	4	12	75
상업서비스와공급품	9	1.1	0.6	3	6	67
식품과기본식품소매	2	0.2	0.0	0	2	100
가정용품과개인용품	2	0.2	0.0	0	2	100
합계	811	-	-	-	557	-

주석: 업종은 WICS를 따름, 기업 수와 (%)는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의 숫자와 전체 기업 대비 비율임, 미실시기업(%)은 업종 내 기업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임

출처: DataGuide, DART, 한국ESG기준원

〈표 3〉 코스닥시장 업종별 기업설명회 평균 개최횟수(2023)

구분 업종	구분		평균 개최횟수	업종 내 최대횟수	미실시 기업	
	기업 수	(%)			기업 수	(%)
미디어와엔터테인먼트	99	6.1	1.4	19	73	74
식품과기본식품소매	6	0.4	1.3	8	5	83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89	5.5	1.1	13	56	63
제약과생물공학	187	11.6	0.9	15	124	66
운송	13	0.8	0.8	7	11	85
상업서비스와공급품	20	1.2	0.8	5	15	75
반도체와반도체장비	138	8.5	0.7	12	101	73
전자와 전기제품	63	3.9	0.7	6	48	76
소프트웨어와서비스	147	9.1	0.6	11	110	75
내구소비재와의류	94	5.8	0.6	13	76	81
호텔, 레스토랑, 레저등	12	0.7	0.6	6	10	83
디스플레이	72	4.4	0.5	7	61	85
기술하드웨어와장비	199	12.3	0.4	20	166	83
자본재	172	10.6	0.3	12	154	90
소매(유통)	22	1.4	0.3	3	17	77
다각화된금융	22	1.4	0.3	6	21	95
에너지	22	1.4	0.2	3	19	86
자동차와부품	80	4.9	0.2	5	68	85
식품, 음료, 담배	39	2.4	0.2	4	37	95
소재	92	5.7	0.2	4	84	91
교육서비스	15	0.9	0.1	1	14	93
은행	1	0.1	0.0	0	1	100
전기통신서비스	2	0.1	0.0	0	2	100
보험	1	0.1	0.0	0	1	100
증권	4	0.2	0.0	0	4	100
유틸리티	1	0.1	0.0	0	1	100
가정용품과개인용품	6	0.4	0.0	0	6	100
합계	1618	100	-	-	1285	-

주석: 업종은 WICS를 따름, 기업 수와 (%)는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의 숫자와 전체 기업 대비 비율임, 미실시기업(%)은 업종 내 기업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임

출처: DataGuide, DART, 한국ESG기준원

2. 기업설명회 운영방식

□ 사전안내 및 IR자료

- 양 시장 모두 기업설명회 개최 약 1주일 전에 사전 공시를 하며, IR자료도 모두 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기업설명회 3주 전에 안내공시를 하는 기업(5)은 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나 코스닥시장에서도 30사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전안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평균 6.2일 전에 사전 안내공시를 하였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은 평균 6.7일 전에 사전 안내공시를 함⁶⁾
- (IR자료) 실적발표 기업설명회의 경우, 공정공시 기준에 의해 설명회 당일 또는 하루 전에 IR자료가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연간 기준 모든 기업설명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간 범주가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설명회 개최일 몇 달 전에 IR자료를 게재하는 경우는 기업 홈페이지에 사전에 올려둔 IR자료를 기업설명회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과거 분기 실적발표 자료를 시간이 지난 뒤 설명하는 경우 등인 것으로 확인됨

□ 주관기관

- 유가증권시장의 기업설명회 주관기관별 비율은 자사 33%, 증권사 등 65%, 한국거래소 및 한국IR협의회 등 2%이며, 코스닥시장은 자사 27%, 증권사 등 62%, 한국거래소 및 한국IR협의회 11%로 조사됨
 - 양 시장 모두 증권사 주관 기업설명회가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자사 주관 비율이 낮고, 한국거래소나 한국IR협의회를 동반한 기업설명회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적임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자사 주관 비율이 분기 기준 26%p까지 차이 났으나 연간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시장의 분기 실적발표는 자사가 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참가대상

- (전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가 85%,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가 15%인 것으로 조사됨
 - 주관기관과 참가대상을 연계해 살펴보면, 자사 주관 기업설명회(784회) 중 40%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증권사 주관 기업설명회(1,625회)는 그중 1%만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됨. 다시 말해 증권사 주관 기업설명회의 99%가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5) 삼성그룹 계열사(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에스디에스)가 기업설명회 개최일 3주 전에 사전 안내공시를 하고,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Web-casting 방식의 기업설명회를 실시함

6) 상장기업 70% 이상이 일주일 전에 사전 안내공시를 한다는 점에서 일주일을 통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 2023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설명회 운영방식

구분	전체		유가증권		코스닥		
	개최횟수	비율	개최횟수	비율	개최횟수	비율	
주관 기관	자사	784	0.31	527	0.33	257	0.27
	증권사 등	1625	0.64	1027	0.65	598	0.62
	거래소 및 협의회 등	136	0.05	33	0.02	103	0.11
	언론	4	0.00	1	0.00	3	0.00
	합계	2549	1.00	1588	1.00	961	1.00
참가 대상	모든 이해관계자	380	0.15	232	0.15	148	0.15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2169	0.85	1356	0.85	813	0.85
	합계	2549	1.00	1588	1.00	961	1.00
개최 장소	온라인	1163	0.46	804	0.51	358	0.37
	오프라인	1386	0.54	784	0.49	603	0.63
	여의도	815	0.32	370	0.23	445	0.46
	서울	231	0.09	175	0.11	56	0.06
	해외	175	0.07	122	0.08	53	0.06
	그 외 국내 (본사 등)	166	0.07	117	0.07	49	0.05
	합계	2549	1.00	1588	1.00	961	1.00

단위: 회(횟수), 비율은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1.00=100%)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 개최장소 및 진행방식

- (개최장소) 전체 기업설명회 중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는 46%(1,163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기업설명회는 54%(1,386회)인 것으로 조사됨
- 유가증권시장의 온라인 대 오프라인 기업설명회 비율은 51:49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코스닥시장은 37:63으로 오프라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오프라인 기업설명회(1,387회) 중 약 75%(1,046회)는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에서 개최됨. 국내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업설명회 비중은 실제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유가증권시장은 오프라인 기업설명회 내에서 여의도 외 지역에서의 개최 비율도 높은 편임. 반면, 코스닥시장은 오프라인 기업설명회 70% 이상이 여의도에서 진행됨
- (진행방식) 대면미팅·NDR을 활용하는 비율은 두 시장 간 큰 차이가 없음. 대비되는 것은 코스닥시장이 웹캐스팅,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Corp-day·간담회·컨퍼런스와 기업탐방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임. IR활동에 가용한 자원이 적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Corp-day, 컨퍼런스 등 증권사 주관의 주요 이벤트를 보다 활용하게 된 결과로 추측함

〈표 5〉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 진행방식(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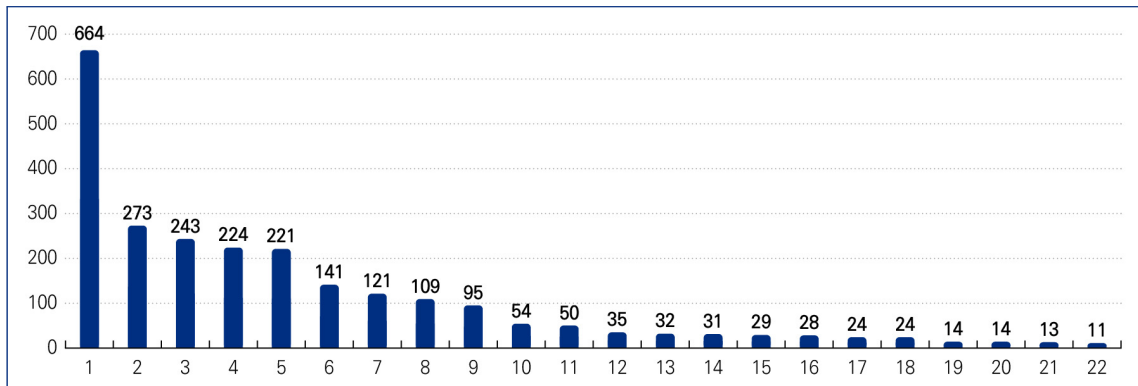
개최 방식	웹캐스팅·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대면미팅·NDR		Corp-day·간담회·설명회·컨퍼런스 등		기업 탐방		합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전체	561	22.0	525	20.6	1036	40.6	403	15.8	24	0.9	2549
유가증권	386	24.3	362	22.8	640	40.3	189	11.9	11	0.7	1588
코스닥	175	18.2	163	17.0	396	41.2	214	22.3	13	1.4	961

단위: 개사, %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 **종합결과:** 지금까지 논의된 기업설명회 운영방식에 대한 통계치를 종합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5〉 2023년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 운영방식(종합)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주석: 연간 10회 이상 진행된 방식을 개최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 (온라인은 모든 비대면 방식을 의미), 1번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임

- 1: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대면미팅 등
- 2: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컨퍼런스콜
- 3: 자사 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온라인 웹캐스팅 등
- 4: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NDR
- 5: 자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컨퍼런스콜
- 6: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Corp-Day
- 7: 자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웹캐스팅 등
- 8: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웹캐스팅 등
- 9: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컨퍼런스
- 10: 자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대면미팅 등
- 11: 거래소 및 협의회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웹캐스팅 등
- 12: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NDR
- 13: 거래소 및 협의회 등 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온라인 웹캐스팅 등
- 14: 자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설명회
- 15: 자사 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온라인 컨퍼런스콜
- 16: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온라인 Corp-Day

- 17: 증권사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설명회
 - 18: 거래소 및 협의회 등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대면미팅 등
 - 19: 자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NDR
 - 20: 자사 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오프라인 설명회
 - 21: 자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 대상의, 오프라인 기업탐방
 - 22: 자사 주관의,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오프라인 간담회
- *10회 이하 생략

결론 및 시사점

-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업설명회(IR) 개최횟수 및 운영방식에 관한 통계치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소통 수준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기업설명회 운영에 관한 기준점을 조사·마련하는데 있음
- 2023년 국내 IR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상장기업의 소통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유가증권시장의 실시기업 비율이 전년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기업설명회 **미실시기업 비율**이 여전히 **70%를 초과함**.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상장된 시장과 관계없이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모가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IR활동 개선·지원책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함
- 또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가 15%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상장기업의 IR 활동이 기관에 한정된다는 비판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함
 - 운영방식 측면에서 참가대상을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로 제한하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필요와 증권사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주주의 권리나 정보의 공정성 관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같이 분기별 실적발표 등 중요한 발표에 한정해서라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기업설명회 장소와 진행방식(온라인-오프라인 등)을 고민해보아야 함,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오프라인 설명회가 있는 경우, 서울 외 지역의 이해관계자는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수 있음
 - 현실적인 한계(홍보, 모집, 장소 등)로 여의도에서, 증권사 주관의,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더라도 온라인 생중계, 녹음, 속기록 등의 보완책을 활용할 수 있음
- 공시 수준의 개선 역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시 상 참가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거나,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없음에도, 실제로는 사전에 조율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기업의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안내가 필요함

- 2023년 기준 글로벌 주요 기업 수준('기업설명회(IR) 개최일 1주일 전 안내공시', '모든 이해관계자 대상의', '연간 4회 이상', '온라인 방식')으로 기업설명회를 실시하는 기업은 58개로 조사됨. 공시 수준과 조사 방법의 한계로 과소집계 되었을 수 있으나 국내 상장기업의 2%에 불과한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소통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촉구됨

기후변화와 보험산업

문서정*

- ▶ 최근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보험사는 재무적 손실을 동반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보험업계의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함
- ▶ 한편, 국내 보험사의 경우 해외 보험사와 달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상품 대부분이 정책 보험(농작물, 가축재해보험)의 형태로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사후적 피해 보상 형태로 확인됨
- ▶ 따라서, 지수형 보험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후 지수를 활용한 기후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사전적으로 기후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상품 개발 및 기후투자 확대, 그리고 기후/환경에 대한 내부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서론

- 최근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재해의 발생 빈도와 심도 및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3년은 가장 더운 해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평균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45도 높아 파리 기후협정에서 합의한 1.5도에 근사한 수준으로 확인됨¹⁾
 - 기후변화로 인한 전세계적인 자연재해 발생 건수는 1970년대 87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대 3,65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 역시 1970년대 183.9억 달러에서 2010년대 1,476.2억 달러로 12배가량 증가하였음²⁾³⁾
 - 국내 평균기온의 경우 2100년 기준 SSP1-2.6 시나리오 하 전국 평균기온은 14.4도이지만, SSP3-7.0 및 SSP5-8.5에선 각각 17.9도, 19.5도로 관측됨. 따라서, 현재(2023년 기준) 전국 평균기온이 13.7도임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기후변화에 대해 범국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지표면 온도 상승이 예상됨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moonsj@cgs.or.kr

1) Climate change indicators reached record levels in 2023: WMO, 2024.03.19.

2) Economic costs of weather-related disasters soars but early warnings save lives, WMO, 2023.05.22

3) Number of recorded natural disaster events, 1900 to 2022, EM-DAT, CRED / UCLouvain (2024)

〈표 1〉 국내 기후변화 시나리오 별 전국 평균 온도 예상치

	SSP1-2.6	SSP2-4.5	SSP3-7.0	SSP5-8.5
2030	13.0℃	13.8℃	13.5℃	13.3℃
2040	13.5℃	12.7℃	13.5℃	13.6℃
2050	14.0℃	13.8℃	14.5℃	14.2℃
2060	13.1℃	13.8℃	15.6℃	15.4℃
2070	13.5℃	15.3℃	15.8℃	16.1℃
2080	13.3℃	15.1℃	15.8℃	18.3℃
2090	14.7℃	15.7℃	17.6℃	19.3℃
2100	14.4℃	16.1℃	17.9℃	19.5℃

출처: 기상청 지역별 기후변화시나리오

* SSP1-2.6은 재생 에너지 기술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가정(저탄소 시나리오), SSP2-4.5는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임을 가정, SSP3-7.0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 SSP5-8.5는 산업 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점을 두어 화석 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 확대를 가정한 시나리오임

- 기후변화는 보험사에 다양한 리스크(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배상책임 리스크)를 유발시킬 수 있기에 기후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⁴⁾⁵⁾⁶⁾
 -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 자체에서 유발되는 물적 피해로, 대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 상승은 해당 위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
 - 전환 리스크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세부적으로는 정책적 리스크, 법적 리스크, 기술적 리스크, 시장 정서 리스크, 평판 리스크로 나누어짐
 - 특히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의 금융배출량⁷⁾이 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보험산업 기업 전반의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⁸⁾
 - 배상책임 리스크는 타 금융업과 달리 보험업에만 발생하는 기후 관련 리스크로 보험계약자인 기업체 임원과 기업들이 기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야기되는 배상책임금 지급 및 관련 소송 제기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위험임
- 이에 본 고에서는 기후변화가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 보험사의 보험상품 및 보험 정책 비교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보험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4) 기후변화 리스크의 경제적 파급, 아주경제, 2023.10.16

5) 기후 위기 비상...보험사 위협하는 '3대 리스크', 한국경제, 2023.05.08

6)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보험연구원 세미나, 2024.10.31

7)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 대출을 할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함

8) "10대 손해보험사 금융배출량, 연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 한겨레, 2024.08.15

국내 기후변화와 보험산업 간의 관계

- 최근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이상기온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확대시켜 보험산업의 수익구조(가입률, 지급률, 손해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폭염)** 일반적으로 폭염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말하며, 국내의 경우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함
- 최근 30년간의 폭염 현황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5년~2004년 89.9일, 2005년~2014년 102.8일, 2015년~2024년 163.6일로 폭염일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폭염일수가 증가할수록 온열질환에 따른 온열 진료비와 요양급여비용총액 또한 커짐이 확인됨
 - 실제로 2018년의 경우 폭염일수의 연 합계는 31일로 가장 높은 폭염일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험자 부담금과 요양급여비용총액 또한 54.41억 원, 73.32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따라서, 평균 지표면 온도의 지속적 상승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의 발생 빈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온열 진료비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규모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국내 최근 7년간 온열질환자 수

	온열질환자 수(명)	보험자 부담금 (억 원)	요양급여비용총액 (억 원)	폭염일수 (일)
2017	24,679	18.67	25.55	13.5
2018	45,930	54.41	73.32	31
2019	24,838	24.90	33.44	13.1
2020	17,180	16.34	22.16	7.7
2021	20,128	30.76	40.77	11.8
2022	32,561	24.00	32.26	10.6
2023	30,377	36.28	49.07	14.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별 온열질환자 수

* 한의분류 및 약국 제외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 주상병 코드: 열사병(T67.0), 열실신(T67.1), 열경련(T67.2), 열탈진(T67.3~T67.5), 열부종(T67.7), 기타(T67.8~T67.9)

- 더불어, World Economic Forum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 심화로 인해 폭염 외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¹⁰⁾
 -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온열질환 외 다양한 종류(영양실조, PTSD 등)의 질환이 등장할

9)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 WMO(세계기상기구) 등에서는 이상기온을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각각 기온 발생확률 정규분포도의 양쪽 극단에 위치한 10%ile 미만 혹은 90%ile을 초과하는 현상으로 정의함

10) 기후변화시대 생명보험업의 대응, 보험연구원, 2024.05.20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생명보험업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3〉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이 예측되는 건강 문제

극한 기상 현상	발생 지역	건강 결과 (문제)	극한 기상 현상	발생 지역	건강 결과 (문제)
가뭄	아프리카 남동부	영양실조	폭풍	아시아	사망, 인적 손실
홍수	아프리카 중부	이질	홍수	동남아시아	이질
해수면 상승	아시아	고혈압	홍수	남아메리카 북부	PTSD
해수면 상승	아프리카	고혈압	홍수	아시아	뎅기열
홍수	동남아시아	PTSD	홍수	동남아시아	사망, 인적 손실
산불	미국 서부	범불안장애	폭염	동남아시아, 인도	온열질환
폭풍	아시아	PTSD	홍수	아프리카	뎅기열
가뭄	지중해	범불안장애	가뭄	지중해	콜레라
산불	지중해 유럽 부분	범불안장애	폭풍	북미, 중미	PTSD
가뭄	지중해	영양실조	폭풍	북미, 중미	사망, 인적 손실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4.1), “Quantify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Health”, ; 기후 변화시대 생명보험업의 대응, 보험연구원 보고서 재인용

- **(태풍 및 호우)** 태풍과 호우의 경우 모두 짧은 시간 내 과도한 수준의 강수를 동반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는 태풍과 호우에서 비롯됨
 - 기상청 재해연보 내 10년간 재해 원인별 피해액 현황에 따르면, 태풍은 전체 피해액 대비 약 31.3%, 호우는 61.4%를 차지하여 태풍 및 호우는 전체 국내 재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23년의 경우 7월 강수량은 506.4mm로 이는 7월 평년 강수량(254.9~308.2mm)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장마철 전국 강수량으로 보았을 때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강우강도)은 관측 이래로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됨¹¹⁾

〈표 4〉 국내 최근 10년간 강수량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강수량 (mm)	1189	959.8	1289.1	982.4	1437	1184.4	1,629.9	1,243.3	1,140.5	1,740.3	1,279.6
강수일수 (일)	113.3	113.8	109.1	99.9	98.3	96.7	106.2	113.9	90.9	109.3	105.1

출처: 강수량분석,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11)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 국가전략정보포털, 2024.03

- 특히 태풍 및 호우의 경우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가축 폐사 등으로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음
 - 실제로 호우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책보험의 가입률과 지급보험금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 확인됨

〈표 5〉 최근 3개년 간 태풍 및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내역

	농작물 피해내역 (단위:ha)	농경지 유실/매물 (단위: ha)	가축 폐사 (단위: 천 마리)
2021	44888.8	170.9	108.439
2022	54501.5	773.8	46.703
2023	84465.0	1491.04	913.4

출처: 2021~2023 이상기후보고서

- 손해율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액 ÷ 위험 보험료’으로 산정되는 만큼, 위험 발생으로 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
 -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모두 2001년에 비해 가입률은 각각 2.9배, 4.3배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14억 원에서 10,101억 원으로, 42억 원에서 1,647.9억 원으로 증가하였음¹²⁾

〈표 6〉 농작물, 가축재해보험 지급 현황

(금액 단위: 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보험금	가입률	보험금
2001	17.5	14	21.7	42
2005	23.4	239	37.9	185
2010	13.6	903	53.1	483
2015	21.5	524	90.7	885
2016	27.4	1,069	92.4	1,254
2017	30.1	2,873.5	92.9	1,292.4
2018	33.1	5,842.1	93.1	2,392.8
2019	38.9	9,089.6	93.3	1,743.0
2020	45.2	10,192.8	92.8	1,477.9
2021	49.5	5,764.5	93.7	1,456.7
2022	50.0	5,598.0	94.7	1,678.1
2023	52.1	10,101.1	94.4	1,647.9

출처: 2017~2023 이상기후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 ~ ‘27)

12)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보험 운영 및 위험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하는 농업재해보험 도입기로 분류하고 있음.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법은 실제로 2001년 1월에 제정되고 당해 3월부터 실시되었던 점에서, 현재 보험 가입 동향과 지급보험금 추세를 과거 데이터와 비교함에 있어 2001년부터의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 특히, 정책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2001년 이후 2023년까지의 누적 손해율은 99.3%로 기록됨¹³⁾
-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해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사 간 사전적 조율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7〉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 손해율 정도

(금액 단위: 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손해율	보험금	손해율
2019	9,089.6	185.6	1,743.0	99.6
2020	10,192.8	149.7	1,477.9	80.4
2021	5,764.5	74.2	1,456.7	78.6
2022	5,598.0	65.2	1,678.1	93.0
2023	10,101.1	107.5	1,647.9	94.2

- 보험사의 지속적인 손해율의 증가는 보험요율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손해율 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엔 회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여 일부 산업의 위험 인수를 중단할 수 있음
 -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극심해짐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세계적인 자연재해 보험 손실액은 지난 10년간 평균 손실액 대비 54% 높음이 확인됨¹⁴⁾
 -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스테이트팜(State Farm)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로 보험 손실이 증가하자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주 전역의 신규 손해보험 인수를 중단한 바 있음¹⁵⁾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보험상품 현황

- 국내 상장 보험사들의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보상형 상품을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사에서는 관련 보험상품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가(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일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상품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3) 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4) 자연재해로 세계 보험손실액 올해 상반기만 66조원, 조선미디어, 23.08.10
 15) 미국, 기후변화 위험 확대로 인한 위험인수 중단, 보험연구원, 2023.07.17

〈표 8〉 국내 상장 보험사들의 기후변화 보험상품 현황

상품명	내용
풍수해보험	풍수해(태풍, 홍수 등)로 인한 영농시설(주택, 온실) 피해 보상
지진재해보험	지진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보상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수, 벼 등) 피해 보상
날씨보험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 또는 비용 증가 보상
가축재해보험	가축의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상해로 인한 피해 보상
미니보험(계절보험)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 특화위험에 대한 피해 보상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됨

출처: 각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 상품 설명 참조, 한국ESG기준원

* 상장 보험사: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

** 특약 상품은 제외하였음

□ 한편 해외 보험사의 경우, 국내에 비해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해외의 사후적 보상형 상품은 다음과 같음

〈표 9〉 해외 주요 보험사들의 기후변화 보험상품 현황

구분	상품명	내용
Allianz (독일)	① 농작물 보험 ② 날씨 지수형 보험 ③ 산림보험 ④ 햇빛, 바람, 물 부족 보험	① 위성 데이터와 결합된 복합위험작물보험 ② 강우, 폭풍, 서리, 우박 또는 강설 등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함 ③ 화재, 우박, 폭풍우, 산사태와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함 ④ 햇빛, 바람, 물의 영향으로 발생한 수익 손실을 담보함
AXA (프랑스)	① 농업보험	① 기후변화 시나리오하에 농작물 생산의 주요생산지표(수량, 품질, 탄소)를 모델링하고 관련 농업보험 상품으로 홍수, 가뭄, 산출량, 비상시 보증함
SwissRe (스위스)	① Weather Solutions ② Catastrophe Bond	① Weather Solution에 활용되는 weather index는 다음과 같음 1) 온도 기반 지수(Temperature-based Indices) HDD(Heating Degree Day), CDD(Cooling Degree Day), CAT(Cumulative Average Temperature), 특정 임계값 2) 강수량 기반 지수(Precipitation-based Indices) 총강수량, 하천 유량, 강설량/적설 깊이, 특정 임계값 3) 풍속 기반 지수(Wind-based Indices) 평균 풍속, 특정 임계값 4) 태양 복사량 기반 지수(Solar Irradiance-based Indices) 평균 태양 복사량 5) 다중 지수 (Multi-index) ② 투자자들에게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사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정적 손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함
SOMPO (일본)	① WIIA (Weather Index Insurance for Agriculture) ② Typhoon Guard Insurance	① 기상청의 강수량 지수를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강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여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해 줌 ② 태풍의 중심이 미리 정해진 범위 내에 통과하면 농가에게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함

구분	상품명	내용
Liberty MUtual(미국)	① NFIP	① NFIP는 미국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반 보험사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상품으로 자택 세입자와 사업자에게 홍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제공함

출처: 손해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관리 방안, 제27회 KIRI 산학 세미나
; 각 해외보험사 홈페이지

- 해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이를 보상해주는 사후적인 측면에서의 보상형 상품을 넘어, 기후 관련 녹색 증권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Engagement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됨¹⁶⁾¹⁷⁾
 - 예를 들어, 독일의 보험회사 알리안츠(Allianz)의 경우, 기업 휴지, 배상책임 또는 기술적 결함과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가능한 종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시행하여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호주의 보험회사 선콕(Suncorp)의 경우, 보험사 최초로 석유 및 가스에 대한 모든 보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특히 회사는 AI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험이 보험인수 및 보험금 청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력을 높임¹⁸⁾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보험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재무적 손실을 동반한 다양한 리스크(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해당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국내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온열질환자 수(생명보험업) 및 농가 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수준(손해보험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험상품은 농가 중심의 정책보험 형태로 매우 제한적임
- 따라서 국내 또한 해외 시장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사후적 보상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 상품 개발 및 기후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보험사 내부에 자연과학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 리스크 관련 팀을 구축할

16) 기후변화 위험 대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및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4.08.24
17) 손해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관리 방안, 제27회 KIRI 산학 세미나, 2022.04.29
18) BCG(2023), An Insurance Risk Framework for Climate Adaptation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들은 이미 자연재해 위험과 관련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학자와 지질학자를 고용해 자연재해 관련 위험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¹⁹⁾

- 한편, 해외 보험사의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상형 상품의 대다수는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합의된 재난 상황이 발생해 트리거(Trigger)에 도달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임
 - 국내에선 2011년 보험계약의 적법성 문제로 지수형 날씨보험의 판매가 보류된 바 있으나, 최근 국내에도 항공기 지연에 관한 지수형 보험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수형 보험을 도입하여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됨
 - 지수형 보험의 주된 문제점인 베이스 리스크(Basis Risk)²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보험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향후 국내에서도 기후 인덱스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기후변화 상품이 설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후변화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보험업의 주요 위협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기후/환경에 대한 새로운 생명 및 손해보험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보험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19) 보험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 보험연구원, 2021.11.29

20) 베이스 리스크(Basis Risk)는 실제 손실과 지급보험금의 차이로, 실제 손실보다 지급보험금이 적은 경우 음의 베이스 리스크(Negative Basis Risk)가 존재하며 반대의 경우 양의 베이스 리스크(Positive Basis Risk)가 존재함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에 따른 이사 보수 차이: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 여부를 중심으로

임성윤*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KRX2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간 보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인 이사와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 간에는 상대적으로 큰 보수 차이가 확인됨
- ▶ 추가로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한 기업에서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러한 보수 차이가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 다만,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주주인 이사는 여전히 고정급 중심의 보수를 수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보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때 일부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 외부주주는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개별 이사 보수의 실질적 심의·의결 권한 강화를 요구하여, 보상위원회가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도입

- 이사(이하, 등기이사를 의미함)의 보수는 적절하게 지급될 경우 주주와 이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통해 보수 지급 구조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계할 경우 외부주주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함
 - 상법 제388조는 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개별적 보수는 실무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소유와 경영이 집중화된 회사에서는 개별 이사의 보수 역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지배주주의 의사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¹⁾
 - 이에 이사 보수에 대한 외부주주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과 독립된 입장에서 이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수의 적절성을 점검할 보상위원회를 설치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²⁾³⁾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sylim@cgs.or.kr

1) 정준우. 2016. 이사의 보수에 관한 쟁점사항의 입법론적 검토. 경제법연구, 15(2), 85-114.

2) 박정국. 2015. 임원보수공시제도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 임원보수공시제도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 이에 본 고에서는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 간 보수 차이를 분석하여, 지배주주인 이사가 지배주주인 아닌 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수령하는 경향이 확인되는지, 그리고 보상위원회 설치가 된 경우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함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른 이사 보수 차이 분석

□ 분석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기업 중 2023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5억원 이상 보수인 이사·감사 상위 5명 개별공시'에 2명 이상 이사의 보수 내역이 공시된 기업의 이사 보수금액
 - 이사 보수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및 퇴직소득을 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해당 보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보수 내역이 공시된 이사 중 중도선임 혹은 중도퇴임한 자가 있는 경우, 이사의 보수금액 중 급여 항목에 대해 연환산을 하여 보수금액을 재계산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한 기업(이하 '참여기업')은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1명 이상과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이사 1명 이상의 보수 내역이 공시된 경우로 분석 대상을 한정함
 -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는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연1회(대표회사)]의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내 '동일인과 친족관계', 사업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내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통해 1차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친족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완함
 - 참여기업은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이사 1명의 보수금액(이하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과 지배주주 일가가 아닌 이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이사 1명의 보수금액(이하 '참여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 최고 보수') 데이터를 수집함
 -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하 '미참여기업')은 이사 중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이사의 보수금액(이하 '미참여기업의 이사 최고 보수')과 두 번째로 많은 보수를 수령한 이사의 보수금액(이하 '미참여기업의 이사 2순위 보수') 데이터를 수집함
- 최종 분석 대상은 참여기업 62개사, 미참여기업 61개사 총 123개사의 사내이사 246명의 보수금액임

23(1), 103-141.

3) 정성숙. 2017. 이사보수의 공시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 경영법률, 27(2), 107-161.

〈표 1〉 조사 대상 기업

(단위: 개사)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	1차 분류	보수 정보 확인 가능 기업	최종 분석 대상
참여기업	88	확인 가능	62
		확인 불가	26 ⁴⁾
미참여기업	112	확인 가능	61
		확인 불가	51 ⁵⁾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른 보수 비교
 -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은 29.1억 원으로, 미참여기업의 이사 최고 보수 평균인 22.2억 원 대비 약 31.1%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에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8.7%로 미참여기업의 이사 최고 보수의 상여금 비중 평균인 42.4%보다 약 13.7%p 낮게 나타남
 - 이는 지배주주인 이사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보수를 수령하고 있으며, 고정급 중심으로 설계된 보수 구조를 통해 성과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보수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른 이사 최고 보수 비교

(단위: 억원)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미참여기업의 이사 최고 보수		
	평균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총 보수	29.1	26.6	84.3	22.2	16.9	69.0
상여	9.6	4.9	52.2	11.2	7.2	53.1
상여비중	28.7%	26.3%	70.1%	42.4%	40.5%	100%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 한편, 기업별 이사의 보수 수준은 기업의 특성이나 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동일 기업 내 이사 간 보수 배율(Pay Ratio)을 계산하여 이사 간 보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되,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보수 배율 산정 방식을 달리함
 -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를 참여기업의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 최고 보수로 나누어 배율을 계산함
 - 미참여기업의 경우, 미참여기업의 이사 최고 보수를 미참여기업의 이사 2순위 보수로 나누어 계산함

4)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이사가 없는 기업이 8개사,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의 보수는 5억 원 이상이지만 지배주주인 이사의 보수가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6개사, 지배주주인 이사의 보수는 5억 원 이상이지만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의 보수가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12개사
 5)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이사가 없는 기업이 29개사,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이사가 1명 뿐인 기업이 22개사

- 분석 결과, 참여기업 62개사의 평균 보수 배율은 2.87배로, 미참여기업 61개사의 평균 보수 배율 2.11배보다 높아, 참여기업에서 이사 간 보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한 기업에서 보수 분배가 지배주주인 이사에게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회사의 보수 정책이 지배주주인 이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거나 운영될 가능성을 시사함

〈표 3〉 참여기업 및 미참여기업 보수 배율 구간별 빈도 비교

(단위: 개사)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1 미만	합계
참여기업	9	15	15	15	6	2	62
미참여기업	0	37	13	10	1	0	61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보상위원회 설치 및 실효적 운영 여부에 따른 이사 보수 차이 분석

-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분석
 - KOSPI200 지수 구성기업 중 지배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이 이사 보수 차이를 완화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서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적 운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이사 보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위원회⁶⁾의 설치 및 실효적인 운영 여부에 따라 보수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외부주주가 이사 보수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보상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여부는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공시에서 보상위원회가 이사 개별 보수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함
 - 참고로 KCGS ESG 모범규준은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은 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 이에 참여기업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보상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와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 최고 보수 간 격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참여기업 62개사 중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은 31개사,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인사위원회 등을 포함함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됨

-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31개사 중 보상위원회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10개사로 확인됨

□ 보상위원회 설치 및 실효적 운영 여부에 따른 보수 비교

-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은 27.7억 원으로, 미설치된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인 30.6억 원을 소폭 하회함
 - 다만,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에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참여기업이 평균 23.8%로,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참여기업의 평균 33.6%보다 약 9.8%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보상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따라 지배주주인 이사가 과도한 보수를 수령하는 경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고정급 중심의 보수 체계는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보상위원회 설치에 따른 참여기업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비교

(단위: 억원)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보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총 보수	27.7	30.0	82.0	30.6	25.8	84.3
상여	7.11	4.0	42.0	12.1	6.1	52.2
상여비중	23.8%	16.9%	70.1%	33.6%	37.25%	68.14%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 보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은 24.5억 원으로,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인 29.2억 원을 소폭 하회함
 - 또한,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에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참여기업이 평균 31.5%로,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참여기업의 평균 20.1%보다 약 11.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상위원회의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상위원회가 개별 이사의 보수를 의결하는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외부주주의 이사 보수구조에 대한 통제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5〉 보상위원회 실효적 운영 여부에 따른 참여기업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비교

(단위: 억원)

	보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보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참여기업의 지배주주인 이사 최고 보수		
	평균	중간값	최대값	평균	중간값	최대값
총 보수	24.5	25.1	38.3	29.2	30.4	82.0
상여	7.3	4.9	24.2	7.0	4.0	42.0
상여비중	31.5%	27.6%	70.1%	20.1%	16.3%	52.6%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참여기업의 이사 간 보수 배율은 평균 2.54배로, 설치되지 않은 참여기업의 평균 배율인 3.21배에 비해 낮아 이사 간 보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상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보수 분배 과정에서 개별 이사에게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절히 분배되어 지배주주인 이사에게 보수가 과다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보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참여기업의 이사 간 보수 배율은 평균 2.14로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참여기업의 평균 2.72배 보다 더 낮게 나타남
 - 이는 보상위원회 설치에 더해 실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지배주주인 이사와 지배주주가 아닌 이사 간 보수 차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6〉 보상위원회 설치 유무에 따른 보수 배율 구간별 빈도 비교

(단위: 개사)

	보상위원회 설치 여부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11 미만	합계
참여기업	O	7	5	8	9	2	0	31
	X	2	10	7	6	4	2	31

출처: DART, 한국ESG기준원

결론

- 지배주주인 이사는 지배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의 이사 및 동일 기업 내 다른 이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지배주주 일가의 이사회 참여에 따라 실제 보수구조가 직무와의 비례성을 크게 벗어날 경우, 이는 경영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켜 외부주주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지배주주인 이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수령하는 경향은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외부주주는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보상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여 이사 보수에 대한 통제기능을 제고할 수 있음
- 한편, 보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배주주인 이사가 고정급 중심의 보수를 수령하는 경향은 보상위원회가 개별 이사의 보수를 심의·의결할 경우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보상위원회가 설치된 기업 중 다수는 이사 전체 보수한도 승인,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등 개별 이사 보수 의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안건을 주로 의결함
 - 따라서 보상위원회가 개별 이사 보수의 심의·의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를 기업에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상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이사 보수 구조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국내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LL) 시장 현황 및 향후 과제

문종원*

- ▶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SLL)이란 차주가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대출을 의미함
- ▶ SLL은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높고, 차주의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 국내의 경우, 지난 2022년 SLL 시장이 형성된 이후 다수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대주로 참여하며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 다만 국내 SLL 상품은 인센티브 구조 등에서 일반적인 SLL과 차이를 보이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상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향후 KPI와 SPT의 설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성과 검증 방식 등에 있어 SLL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이루어 국내 SLL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개요

-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 이하 SLL)이란 차주가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대출을 의미함
- 관련 원칙에 따르면, SLL은 “야심차고, 중대하며, 정량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대출 및/또는 신용 편의(credit facility)”로 정의됨¹⁾
 - 이 중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는 차입 이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관련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 KPI)와 이에 대응되는 지속가능성 성과 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이하 SPT)를 뜻함
 -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KPI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에 대한 SPT는 ‘2024년(기준년도) 대비 2027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 30% 감축’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jwm@cgs.or.kr

1) Loan Market Association, Asia Pacific Loan Market Association, & 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 (2023). 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 https://www.lma.eu.com/application/files/9216/9755/2878/Sustainability_Linked_Loan_Principles_23_February_2023_v.2.pdf

- 한편 SLL의 가격결정 방식은 SPT 달성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one-way 방식, 그리고 이와 동시에 SPT 달성 실패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two-way 방식으로 구분됨
- SLL은 녹색 대출(Green Loan) 등과 달리 용처가 R&D 등으로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 운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녹색 대출이란 기존 및/또는 신규 녹색 프로젝트(green project)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융자하는 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대출 상품을 의미함²⁾
 - 녹색 프로젝트란 명확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이처럼 녹색 대출은 자금 용처가 환경 관련 프로젝트로 한정되어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 고정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모든 차주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반면 SLL은 녹색 프로젝트 외에도 회사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SPT 달성시에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게 됨
- 한편 차주는 SLL을 통해 유동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가 존재하는 차주의 경우, 이와 SPT를 일치시켜 목표 달성을 위해 SLL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차주의 경우, 동 목표를 SPT로 설정함으로써 관련 설비 투자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차주 역시 SLL 계약 과정에서 KPI 및 SPT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인 체계가 구성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게 됨

본론

- 최초의 SLL 사례는 지난 2017년 4월 Phillips가 ING 은행을 포함한 대주단과 체결한 신디케이트론 계약임³⁾
 - 동 SLL의 규모는 총 10억 유로(약 1조 2,232억 원⁴⁾)로, 대출 만기 시점인 2029년 3월까지 각 연도별 Phillips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two-way 방식에 해당함

2) Loan Market Association, Asia Pacific Loan Market Association, & Loan Syndications and Trading Association. (2023). Green Loan Principles. https://www.lma.eu.com/application/files/8916/9755/2443/Green_Loan_Principles_23_February_2023.pdf

3) ING. (2017.04.19). *ING and Philips collaborate on sustainable loan*. <https://www.ing.com/Newsroom/News/ING-and-Philips-collaborate-on-sustainable-loan.htm>

4) 당시 환율 기준, 이하 동일

- 다만 동 SLL은 특정한 KPI 및 SPT가 아닌 Sustainalytics의 ESG 등급을 벤치마크로 하여 Phillips의 지속가능성 성과가 평가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당시는 후술할 SLL 원칙 등 SLL 관련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대주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평가기관의 지표를 활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이후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인 KPI와 SPT를 설정하고 이를 제3자가 검증하는 구조로 발전하여 차주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됨

〈표 1〉 SLL의 유형

구분	외부 평가기관 활용	KPI·SPT 및 제3자 검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stainalytics 등 외부 평가기관의 지속가능성 등급에 따라 금리 조정폭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가 ESG 각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KPI와 SPT를 설정함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L 계약 체결 시 최신 지속가능성 등급 보고서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L 계약 체결 시 제3자의 검토가 필요함 • 대출 만기 시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의 SPT가 설정됨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의 (최신) 지속가능성 등급 보고서에 따라 금리가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의 KPI는 제3자를 통해 매년 외부 검증됨
사례(기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ilips, Barry Callebaut, Bpost, Red Electrica, Adecco, Ol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newi, DSM, Volker Wessels, Corbion, Grupo Siro

출처: Sustainability Improvement Loan(ING, 2020)

- 이후 지난 2019년 3월, 글로벌 대출 시장 관련 주요 협회 세 곳은 공동으로 개발한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원칙(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 이하 SLLP)을 공개함⁵⁾
 - SLLP는 SLL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한 핵심 요소를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으로, SLL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
 - 특히 본문에서 제시된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제3자 검증 방식이 차주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SLL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한층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옴
 - 한편 동 원칙은 지난 2023년 2월 최종 개정을 통해 KPI와 SPT의 설정 방식, 그리고 검증 기준을 더욱 명확화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5) 각주 2) 와 동일

〈표 2〉 SLL의 핵심 구성요소

핵심 구성요소	내용
1. KPI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L은 차입기간 중 '지속가능성 프로파일(전반적 수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차주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KPI는 반드시 차주의 핵심 지속가능성 및 사업 전략과 연관되어야 하며, 해당 산업 분야의 중요한 ESG 문제를 다루어야 함 - KPI는 반드시 ①차주의 전반적인 사업 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써 차주의 현재 및/또는 미래 운영에 높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져야 하며, ②일정한 방법론을 통해 측정 또는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하고, ③벤치마크될 수 있어야 함
2. SPT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T를 KPI별로 보장하는 과정은 SLL 구조화의 핵심 요소임 - SPT는 ①특정 KPI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관행이나 법적 요구치를 초과하는 실질적인 개선 수준을 나타내야 하며, ②가능하다면 외부 레퍼런스 등과 비교되어야 하고, ③차주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전략과 일치해야 하며, ④대출 실행 시점까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 SPT를 ①차주의 자체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KPI에 대한 최소 3년간의 측정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②차주의 동종업계와 비교 시에는 동종업계의 평균 성과나 최고 성과 또는 현재의 산업 또는 부문 표준과 비교되어야 함 - 또한, SPT와 관련하여 ①SPT 달성 일정, ②기준년도(현재) 상태 및 SPT 설정의 근거, ③SPT 조정 및 재계산 요건, ④SPT 달성 계획 등 여타 SPT 달성에 미칠 수 있는 요인 등의 정보를 대주에게 제공해야 함
3. 대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LL의 핵심적인 특징은 사전에 설정된 SPT의 달성 여부와 차주의 '경제적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임 - 차주가 SPT를 달성할 경우 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만, SPT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
4. 보고(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는 대주에게 SPT 성과(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SPT가 여전히 도전적이고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차주는 대주에게 당해연도의 SPT 달성 여부와 관련된 성과, 그로 인한 대출 경제적 특성에 대한 영향 및 그 발생 시기를 명시한 지속가능성 확인서와 검증 보고서 등을 최소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차주는 시장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SPT 관련 정보를 연차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이 권장됨
5.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주는 각 KPI에 대한 SPT 성과 수준을 평가받기 위해, 이와 관련된 모든 날짜/기간에 대해 독립적이고 외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SLLP의 필수 요소임 - SPT 성과의 검증 결과는 대주와 적시에 공유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시될 수도 있음 - 보고 및 검증이 완료되면, 대주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주의 KPI 및 SPT 성과를 평가하게 됨

출처: Sustainability-Linked Loan Principles(LMA, APLMA, & LSTA, 2023)

- 이러한 SLLP의 등장 이후 글로벌 SLL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며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됨⁶⁾
 - SLL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대주 입장에서) SLL 및 관련 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음
 - 이후 SLLP의 도입에 따른 KPI와 SPT 설정, 그리고 제3자 검증이 일반화됨에 따라 SLL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어 다양한 산업에 걸쳐 SLL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또한 지속가능성과 ESG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며 SLL이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로

6) 하나금융연구소. (2021). 글로벌 ESG 대출 시장 현황 및 시사점

- 자리잡게 되었고, 이러한 요인 또한 SLL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최초 형성 당시 50억 유로(약 7조 4,659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SLL 시장 규모는 불과 5년만에 7,630억 유로(약 1,145조 원)를 기록하며 상당한 성장세를 보임
- 다만 지난 2022년 이후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SLL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동성이 나타남

〈표 3〉 SLL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유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SLL	50	470	1,320	1,760	6,320	7,630	5,210

출처: Green & Sustainability-Linked Loan Newsletter(BBVA, 2024)

- 국내 최초의 SLL 사례는 지난 2021년 6월 SK텔레콤이 싱가포르 DBS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임
- 해당 SLL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대출 만기 시점인 2025년 3월까지 SK텔레콤이 탄소배출 관리 등에 관한 SPT를 달성할 경우 금리가 인하되는 구조로 설계됨
 - 이처럼 대주 또는 대주단이 해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SLL 사례는 아래와 같으며, 일부 금융기관 또는 특정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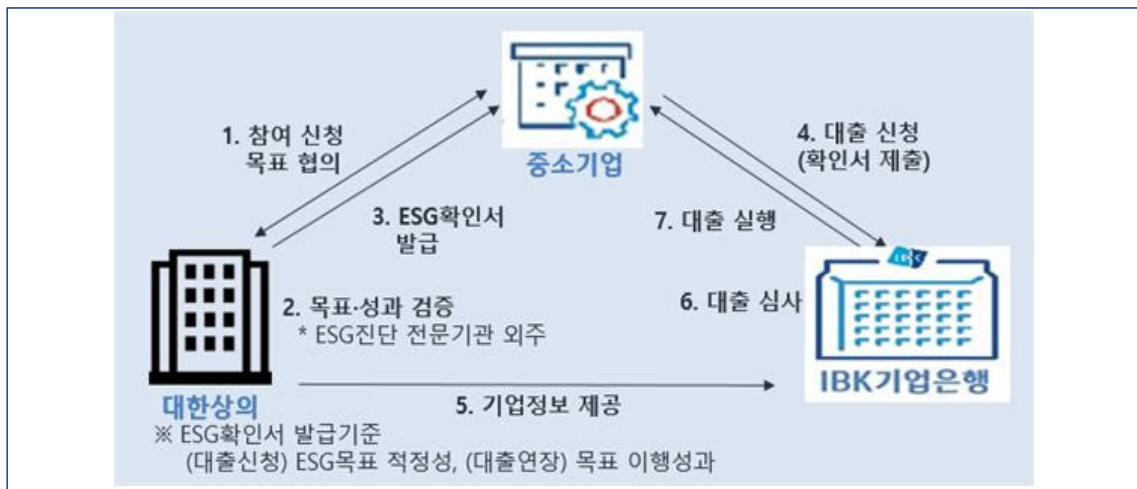
〈표 4〉 국내 차주-해외 대주(단) SLL 대표 사례

기업명	내용	시점
SKT	대주: 싱가포르 DBS은행 차입규모: 2,000억 원 만기: 3년	21.06.02
신한은행	대주: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차입규모: 4억 달러(약 5,509억 원) 금리 감면 폭: 최대 0.05%p 만기: 5년	22.09.14
신한캐피탈	대주: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차입규모: 1,800억 원 금리 감면 폭: 최대 0.05%p	22.10.27
SK지오센트릭	대주: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차입규모: 4,750억 원 만기: 3년	22.11.15
KB국민은행	대주: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차입규모: 3억 달러(약 4,131억 원) 금리 감면 폭: 최대 0.015%p 만기: 5년	23.02.14
SH수협은행	대주: 다수의 해외 금융기관 차입규모: 2억 달러(약 2,754억 원) 만기: 3년	23.09.12

출처: 각 사 웹페이지

- 그러나 상기한 사례들은 국내 기업이 해외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 SLL 시장의 형성 과정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 한편 국내의 SLL 시장 형성 시점은 IBK기업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관련 상품을 선보인 지난 2022년 2월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해당 SLL 상품은 국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되었으며, 총 대출규모는 5,000억 원임
 - one-way 방식이며, 차주가 ESG 관련 KPI와 SPT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KPI(SPT)의 중대성 등에 따라 최대 1%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됨
 -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은 차주로 하여금 ESG와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정량화 또는 입증 가능한 KPI(SPT)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며, 대출 실행 시점부터 사전적으로 금리가 감면되는 특징이 있음

〈그림 1〉 IBK기업은행 ‘ESG 성공지원 대출’ 개요



출처: IBK기업은행

〈표 5〉 ‘ESG 성공지원 대출’ SPT 검토 신청서 관련 KPI 일부

KPI 예시
용수 사용량 (용수 사용량 절감 수준)
에너지 사용량 (전력 사용량 절감 수준)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절감 수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ISO 14001 인증 신규 취득)
반부패 경영체계 구축 (ISO 37001 인증 신규 취득)
산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ISO 45001 또는 KOSHA-MS 인증 신규 취득)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이후 국내 여타 시중은행들이 SLL 시장에 대주 역할로 참여함에 따라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국책은행 사례 이외에도 현재 다수의 시중은행이 SLL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해당 상품들은 주로 상장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음
 - 한편, 해당 SLL 상품들은 대부분 one-way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의 SPT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적으로 금리가 감면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SLLP의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임
 - 또한, 일부 상품들은 일반적인 SLL의 취지와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차주의 ESG 경영 수준을 차입 시점과 만기 시점에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SLL 상품의 경우, 측정 지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여부'(환경 영역), '법정 임금 보장과 4대보험 제공'(사회 영역), '사업활동 및 실적 공시'(지배구조 영역) 등 다소 기본적인 요소들이 설정되어 있음
 - 차주에게 KPI·SPT를 설정하도록 하는 SLL 상품의 경우, 차주가 임의로 원 단위 감축목표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ESG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로 인정되기도 함
 - 이는 차주가 '야심차고, 중대하며, 정량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SLL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
 - 뿐만 아니라, 차주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제3자 검증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투명성 수준에 대해 가늠하기 어려움

〈표 6〉 국내 차주-국내 대주 SLL 사례

기관명	내용	시점
IBK기업은행	명칭: ESG 성공지원 대출 대출규모: 총 5,000억 원 금리 감면 폭: 최대 1%p, 방식: one-way	22.02.17
KB국민은행	명칭: KB Green Wave_ESG 우수기업대출 대출규모: 총 5,000억 원 금리 감면 폭: 최대 1%p, 방식: one-way	23.03.16
하나은행	명칭: 하나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대출규모: 총 5,000억 원 금리 감면 폭: 최대 1.2%p, 방식: one-way	23.06.29
우리은행	명칭: 우리 esg 혁신기업대출 대출규모: 2,469억 원(2023년 12월 말 취급액 기준) 금리 감면 폭: 최대 0.2%p, 방식: 확인 불가	2023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각 사 홈페이지

- 이러한 우려 사항들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 2023년 6월 공개서한⁷⁾을 통해 제시한 SLL 시장 관련 일부 문제점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 동 서한에서는 SLL 관련 일부 KPI와 SPT의 목표치가 낮고 설계가 다소 부실하며, 그린워싱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SLL 시장의 완전성(integrity)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구체적으로, FCA는 대주단인 금융기관이 지속가능금융 제공 목표치 달성을 위해 SLL 제공 과정에서 도전적이지 못한 KPI 및 SPT 설정을 허용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이에 대해 FCA는 SLLP의 확대 적용에 따른 ‘도전적인’ KPI 및 SPT의 설정과 검증, 정보 공개 등의 일반화가 SLL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내의 SLL 시장 또한 KPI와 SPT의 설정 과정, 그리고 차주의 지속가능성 성과 검증 절차 등에 있어 SLLP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결론 및 시사점

- SLL은 차주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달성을 장려하는 대출 상품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를 지님
 - 기존에 존재하던 녹색 대출 등에 비해 자금 활용의 유연성이 높고, 차주의 지속가능성 수준 제고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SLL은 외부 평가기관의 ESG 등급을 벤치마크로 하여 차주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였던 초기의 형태를 거쳐, KPI 및 SPT 설정과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함
 - 이러한 변화는 SLL과 관련한 원칙인 SLLP의 등장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차주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명확히 파악하고 달성 여부 또한 검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한편 국내 SLL 시장은 형성 이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수의 국책은행 및 시중은행이 대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국내 SLL 시장의 주요 차주는 상장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SLL 상품이 제공되어 온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7) FCA. (2023.06.29). *FCA outlines concerns about sustainability-linked loans market*. <https://www.fca.org.uk/news/news-stories/fca-outlines-concerns-about-sustainability-linked-loans-market>

- 향후 국내 SLL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KPI와 SPT 설정, 지속가능성 성과 검증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차주로 하여금 도전적인 KPI 및 SPT를 설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 검증 절차를 통해 대출 만기 시점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외부 평가기관의 진단 또는 지표를 활용하여 차주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함
 - 나아가 차주의 지속가능성 성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유인 체계 설계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국내 SLL 시장의 주요 대주단(은행)이 SLLP를 적극 채택하고 이에 기반하여 SLL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Global News

1. IPSASB, 공공부문을 위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 초안 발표

김예린*

- 지난 10월 31일, IPSASB(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는 정부 등 공공부문 대상 기후 공시 기준 초안(SRS ED 11))을 발표함²⁾
 - IPSASB가 발표한 기후 공시 기준 초안은 최초의 공공부문 대상 기후 공시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World Bank(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개발 중임
 - IPSASB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인 ①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일반 요건, ②기후 관련 공시, ③비재무 정보 공시를 고려하여 기구축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ISSB의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standard)과 GRI의 기후 관련 토픽 기준(Climate-related topic standard)을 기반으로 초안을 개발함

- PSASB의 공시 기준 개발의 목적은 공공부문에 속한 기관이 재무보고서에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기후 관련 정책 프로그램에 따른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
 -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공공부문
 - 국가, 지역, 주/도, 지방 정부
 - 정부 부처 및 정부 소속 이사회/위원회/기관
 - 공적 기금/신탁/법 관련 기관
 - 국제 정부 관련 조직 등
 - 해당 기준이 요구하는 공시 정보
 - 기관이 직면한 기후 관련 리스크(물리적 리스크 및 전환 리스크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공시
 -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 공시
 - 기후 관련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 지표 공시
 - 기후 관련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실행 결과 공시
 - 기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공시

* KCGS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선임연구원, yrkim@cgs.or.kr

1) <https://www.ipsasb.org/publications/ipsasb-srs-exposure-draft-1-climate-related-disclosures>

2) <https://www.ipsasb.org/news-events/2024-10/ipsasb-issues-draft-groundbreaking-climate-related-disclosures-standard-public-sector>

- 기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의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 지표 공시 등
- 해당 기준이 제시하는 공시 적용 범위
 - 기관의 운영 활동과 관련한 모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는 기관에 따른 예외 없이 적용
 - 기후 관련 공공 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만 적용
 - 기업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
 -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 IPSAS(국제공공회계기준)인지 또는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인지 상관없이 IPSASB의 기후 공시 기준 적용 가능
- IPSASB 의장인 Ian Caruthers는 기후 변화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며, 기후 관련 투자 규모 확대 등 경제의 전반적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선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팬데믹 이후 공공부문 재정이 확장됨에 따라 2022년 기준 국채가 전 세계 채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IPSA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은 공공부문의 비교 가능하며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함
- 이에 대해 ISSB 부의장인 Sue Lloyd는 ISSB의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IPSASB의 기후 공시 기준이 공공부문을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에 편입시킬 것으로 전망함
- IPSASB는 이번에 공개한 초안에 대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에 공공부문을 위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최종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26년부터 공공부문의 기후 공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공공부문 또한 공공부문 대상 기후 관련 공시 요구에 대한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기후 공시를 대비해야 함

2.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기업 공시 공통 집행 우선순위 발표

김수연*

- 10월 24일,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는 기업 공시¹⁾를 위한 공통 집행 우선순위 성명을 밝힘
 -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는 매년 공통 집행 우선순위를 발표해 왔으며, 2024년 성명을 통해 2025년에 기업 공시 감독 시 중점적으로 집중할 우선순위(European common enforcement priorities for 2024 corporate reporting)를 발표함
 - 해당 성명은 IFRS 재무공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유럽 단일 전자 보고양식(ESEF)로 나누어 각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집행 우선순위를 발표함
 - 한편 해당 성명에서는 공시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공시 발행자의 경영진, 감독체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함

-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 및 표준
 -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표하여 EU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구체화된 공개 기준을 제공하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개발함
 -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은 ESRS 1(일반 요구사항)과 ESRS 2(일반 공시사항)으로 구성됨

- 이번 성명 내 지속가능성 공시 분야의 집행 우선순위는 3가지로 규정됨
 - 이중 중대성
 - 영향과 재무적 중대성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에 포함시킬 정보를 결정해야 함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서 제시한 중대성 평가 실행가이드(Implementation Guidance on Materiality Assessment)를 참고할 것을 권장함
 - 중대성 평가 절차 및 관련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식별 및 소통에 관한 공시를 강조함
 - 중대성을 판단하는 체계는 ESRS 1에 정의되어 있으며, 영향, 위험, 기회 관련 정보(DR IRO-1) 등 ESRS 2에 포함된 공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은 중대성과 상관없이 공시해야 함

* KCGS ESG평가본부 김수연 연구원, sykim@cgs.or.kr

1)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2024-10/ESMA32-193237008-8369_2024_ECEP_Statement.pdf

- 지속가능성 공시의 범위와 구조
 -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적 공시와 동일한 범위와 기준을 따라야 함
 - 가치 사슬(Value chain)과 관련된 영향, 위험 및 기회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공시 첫 3년간은 완화된 공시 기준을 적용받음. 다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해당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지속가능성 공시의 구조는 ESRS 1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른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ESRS 1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는지 고려해야 함
 -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는 정량적 정보와 재무적 공시에 있는 정량적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참조가능해야 함
- EU 택소노미
 - EU 택소노미(Taxonomy)의 Article 8은 기업의 활동이 환경적 목표에 어떻게, 얼마나 부합하는지 공시할 것을 규정함
 - 2023년 성명에서 제시된 Article 8 택소노미(EU Taxonomy) 공시와 관련된 권장 사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밝힘
 - * 템플릿 사용, 중복 집계 방지, 모든 환경적 목표에 관한 활동의 스캔, 기술적 선별 기준 준수에 관련된 정성적 공시, 자본적 지출계획 공시
 - 해당 공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할 수 없음
 - 경제활동이 여러 환경적 목표를 포괄할 때 각 목표에 대한 적격성 및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가장 관련 있는 목표를 구분해야 함
 - 택소노미 내 공시 내용인 매출액(Turnover)과 자본적 지출(CapEx) KPI 관련 정보가 재무적 공시 내 정보와 연결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예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글로벌 3대 공시인 SEC, ISSB, CSRD 공시의 의무화가 2025년~ 2026년 중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 또한 ESG 공시를 추진하고 있음
 - CSRD는 3대 공시 중 비교적 광범위의 공시를 요구하며 빠른 도입 시기를 앞두고 있어 나머지 ESG 공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에도 적용되므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도입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